

S#1. 방송 다큐 화면 / 통영 앞바다 / D

성우의 내레이션

내레이션에 어울리는 조금 과장되고 직설적인 화면 구성.

성우na 푸르고 거친 ..통영 앞바다 ... 오늘도 아버지는 거친 바다를 향해 .. 나가신다... 두 아들은 손을 흔든다. 아들 뒤에 어머니는 가슴으로 남편에게 인사를 한다. 집에 채 들어오기도 전 엄마는 달라지는 하늘을 느꼈다.

엄마 (후시 같은 소리) 아, 이 바람은 ...

성우na 아궁이에서 저녁 밥 지을 불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고 .. 그날, 저녁식사는 아버지가 유난히 좋아하시던 고등어조림이었다. 어머니는 숟가락을 뜨지 않았다 ... 그저 아버지가 가신 먼 바다만을 바라보고 계셨다.

화면, 뭔가 특별하고 아이디어 있는 그래픽 ... 파도가 배를 삼키는 ...

성우na 그렇게 아버지가 가시고 ..어머니는 두 아들을 위해 ...온갖 일을 다 해야만 했다. 삶은 힘들었고 ... 두 아이의 엄마에게 편한 세상이 아니었다. ... 조금이라도 편해진 삶을 위해 잠시 동안의 이별을 선택한 엄마 ... 그날의 헤어짐이 영원한 이별인줄 모르고 ... 다시 오마 .. 잘 있거라 .. 형 말 잘 듣고 동생 잘 보살피고 ... 그날도 .. 아마 비가 왔던 것 같다.

형제 .. 가는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다.

동생은 울고 우는 동생을 꼭 참고 안고 있는 ... 형 ..

동생의 손을 꼭 쥐고 있는 형의 손에서 ...

마지막 자막

우리는 형제입니다.

S#2 방송국 / 편집실 / D

연출피디와 스태프들이 잔하게 보고 있다.

피디 아..눈물 난다. 죽인다. 아주 그냥 가정의 달 5월에 대박사고 한번 치겠구나.... 자막 좀만 더 넣고 마지막 음악만 바꾸자 ... 양작가 .. 양작가 어딴냐?

S#3 방송국 / 스튜디오 / D

스튜디오.

세트가 세워지고

모니터로 스튜디오가 보여진다.

세트 위에

프로그램 제목인

[지금 만나러 갑니다]

판넬이 올려지고

피디 (스피커 소리만) 김감독 .. 카메라 돌려서 객석이랑 구석탱이들 좀 잡아봐 ...

(카메라 스튜디오를 훑고 지나간다) 아 ...스톱 .. 줌인 ...

여일, 한손에 커피 ..한손에 대본 .. 몸은 구부러진 채 잠들어있다.

김감독 재는 어떻게 저러고 자냐?

피디 김감독 .. 거기 총 같은거 있으면 저 여자 좀 쏘줘 ...

소리만 ... 총소리 같기도 하고 굉음 ...꽈아앙!!!!

S#4 비행기 안 / D

성경책

사진, 어린 두 소년 ..

사진을 쓰다듬는 손 ...

비행기가 착륙을 하려는지 방향을 기울어 눕히며

그때, 사진을 든 손도 비스듬히 누우면 얼굴이 보인다.

상연이다.

S#5 방송국 / 복도 / D

양여일이 ... 걸어 다니며 통화중이다.

여일 도착 시간 맞아? .. 오케이 차 막힐지 모르니까 ... 최대한 쏘라 ... 행여 막히면 그냥 전철타 ...

여일 ... 전화를 끊고 복도 음료대에서 멈춰 주머니에서 약봉투를 꺼낸다.

피디가 그녀에게 걸어온다.

피디 그게 약 먹어서 되니? ...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니까 ...

여일 잠 좀 온다고 미친년 취급 하시네 ...

피디 하루에 스무 번 씩 조는게 ... 그게 잠이니 ??.. 기절이지 .. 공항에 누가 갔어?

여일 김작가가 갔구요 .. 지금 비행기는 내렸대요 ... (알약과 물을 털어 넣는다.)

피디 동생은?

여일 ..입속에 물을 넣은 채 우걱 대며 ..손에든 전화기만 흔들어 ...지금 전화 할꺼라 ...얘기 한다.

S#6 서울로 오는 전철 안 / D

한복차림의 박하연 서있다.

옆에는 60대 중반의 엄마. 승자가 서있다. ...

하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 문자를 본다...

발신자. 양작가

오고 계시죠?

하연의 손이 답 문자를 찍는다.

네 가고 있는데 .. 쪼매 ..

그때 덜커덩 ...

인서트

여일의 핸드폰... 문자 수신음.

박하연 출연자

네 가고 있는데 ...쪼매 ㅋㅋㅋㅋㅋㅋㅋㅋ

여일? 뭐지...

- 다시 전철 ..

하연과 승자 앞 ...노인 한명이 일어나서 문 쪽으로 가고 ...

하연 (승자에게) 앉으이소 ..

승자 아이고 아입니다 ... 피곤해 보이는데 앉으이소 ...

하연 (한숨, 승자를 바라보다가) ... 그냥 서 갑시다 ... 그라문 ...

앉아있는 할아버지가 둘을 보는데 ..

하연 제 모친 입니더 ..그라 보지 맙십쇼 ..

승자 (하연을 보고) 앉으소 아저씨 ...

하연 후 ...

S#7 공항 외곽 도로 / 택시 안 / D

앞자리에 방송국에서 마중 나온 김작가 ...

뒷자리엔 상연이 앉아 있다.

라디오에선 .. 원로 정치인 민한당의 김만재 의원의 별세 소식 ...이 뉴스로 나오고 있고 ...

김작가는 방송국과 통화중이다 ..

김작가 네 .. 차 별로 안 막혀서 제 시간에 도착할거 같아요 .. 네??

택시기사 에구 ...김만재도 갔구만 ... 구설수도 많드만 ..죽으면 하나 소용도 없는거야 ...

김작가 아저씨 .. 라디오 좀 ...

기사, 라디오 볼륨을 줄인다.

김작가 아니 ... 입구에서부터 팔로우 할거라구요? .. 어머 ..그럼 나도 나와요? .. 나
생얼인데 ... 말 좀 해주지!! ...

상연 ... 창밖을 보며 공기와 풍광을 느끼며 눈시울이 붉어져 있다.

S#8 방송국 / 하연, 승자의 대기실 / D

하연, 승자 ... 대기 중이다.

모니터 다른 채널 ...공개방송 ..트롯가수가 노렐 부르고 있고 ...

하연 계란의 껍질을 까서 승자에게 주며 ...

하연 엄마 ... 우리요 ..이제 형아 만나러 갑니다 ...상연이형아 ...박상연이 ..엄마 알제? ..

승자 ...(계란을 먹으며) ... 안다 ... 큰아들 ..

하연 맞지? 나 놓기전에 두해 전에 먼저 하나 놓은 아 ... 알지요?

승자 박상연이 ... 큰아들 안다. 왔다고 진짜로? ...

하연 (고개만 끄덕) ...

승자의 손을 꼭 잡는다.

그때 ... 여일 들어온다.

여일 광고 ... 시작했구요 ..박하연씨 좀 있다가 먼저 들어가시고 .. 어머님은 마지막에 ..
(모니터를 보고) 왜 이걸 틀어놔대 .. (채널을 돌리니 .. ‘지금 만나러 갑니다’ 상단
자막 ...광고가 나온다) 이런 프로 좋아하세요? 답에 제가 모실게요 ..구경 오세요 ..
어이고 어머니 배고프셨어요?

승자 이 아저씨가 줬는데 .. 진짜로 잘 삶았다 ..아가씨도 하나 드이소 .. 껌데기도 한번
까지고 .. 야들야들하게 꺼내는게 보면 쉽지 안 쉬운거걸랑 .. 이 아저씨 참말로 손
이 좋은갑다.

하연 엄마가 삶았잖아요 ...새벽같이 일어나 암탉이 울기도 전에 먼저 삶은게 이거잖아
요 ... 오분을 못가네 오분을 ... 작가양반 ...아무래도 우리 엄마 나가서 헤까닥 헤까
닥 할지 싶은데 ... 꼭 가야하나?

여일 사실 .. 어머님 보다는 형님분이 보고 ...감격하는게 더 중요해서 ...

승자 아가씨 .. 내 오줌 쏘 싸자 ...

여일 아 ...네 ...

하연 나도 땡겨웁시다 ...

하연, 먼저 확 나가버린다.

S#9 방송국 / 상연의 분장실 / 계단과 ...복도 / D

상연 기다림 ... 옆엔 김작가가 .. 대기 중이고 ...

상연 지금 이곳에 .. 저희 어머니가 ...제 동생이 와 있는거죠?

김작가 그냥 빨리 만나시고 싶으시죠? .. 너무 잔인 하죠 .. 방송이라 ... 좀만 계시면 스튜
디오에서 만나실거예요 ..

상연 잠시만요 ... (숨을 고르다가 ...나간다)

- 복도 ..

상연 ... 걷는데 눈이 흐려지고 .. 울음이 난다 ...

소리 없는 눈물만 ...

S#10 방송국 / 부조정실 / D

피디 생방 오분전 ... 출연진 대기하나? 박상연씨 ...

김작가 화장실 가셨는데요..

피디 얼른 준비시켜야지 ... 5분전인데 .. 박하연씨는
FD 박하연씨랑 어머님도 다 화장실 ... 긴장 하셨나봐요 ...
피디 아니 우리 프로 제목이 지금 싸러 갑니다냐? .. 왜들이래?

S#11 방송국 / 화장실 / D

상연 젖은 얼굴을 본다.
상연에 젖듯이 ... 그때 들리는 소리 ... 과한 용변 소리 ...

- 변기칸

하연 .. 숨을 고르고 휴지를 뜯는데 .. 두 칸 남았다.
상연 나가려는데 ...

하연 (소리만) ...저기요 .. 밖에 누구 있습니까? ..
상연 네 ...
하연 도와주소 ... 옆 칸에 휴지 좀 빼가 던져주소 ..

인서트 / 스튜디오 안 음향감독 ...

음향감독 (옆에 조수에게) 야 ..휴지 들고 화장실 좀 가라 ...

상연 저기 ..죄송한데 옆 칸에도 휴지가 ... 사람을 보내던지 ...
하연 저기요 ...저기요 보소 ..아 신문지라도 ..여 보소 ...

S#12 방송국 / 여자 화장실 / D

거울을 보며 머리 모양을 만지는 여일 ...
승자는 변기 칸에 있는 듯 ... 좀 전에 들었던 트로트 음악을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지금은 그 어디서 내 생각 잊었는가.....'
그러다가 ...

그 소리가 조금씩 부드럽게 늘어지듯 여일의 귓전에 ...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 조금씩 희미해지듯 흔들리는 듯 ...
여일의 눈이 힘을 잃어간다.

S#13 방송국 / 스튜디오 / D

상연이 먼저 등장해서 화면을 보고 있다
화면 속 ... 두 형제 이별 장면이다.
상연 ..이미 눈시울이 반짝인다...

인서트 / 무대 뒤 .. 하연. 양말 하나가 없이 한쪽발이 맨발이다.

하연 (혼잣말) ..내 안 운다 ...안 운다 ... 죽어도 안 운다 ...

다시 화면
외국인 부부 손에 보육원을 나가는 ... 어린 상연...
그런 형을 보고 소리 지르는 어린 하연.
형!!!!

S#14 방송국 / 화장실 / D

여일 ...형!!!! 소리에 눈이 떠지듯 ... 자신의 거울 속 모습 ...
또 잤다 ...얼마나???? 공포스럽게 ... 자신의 시계를 본다
더욱 공포스럽게 뒤를 돌아 변기를 본다.
이미 승자가 부르던 트롯 소리는 안 들린다.
그리고
모든 변기 칸 문이 열려있다.

S#15 방송국 / 복도, 다른 화장실 / D

여일 미친 듯이 뛰고 ...

여일 (지나가는 사람들을.. 스텝들을 보며) 저기 혹시 ... 할머니 ...베이지 가디건에 ... 못
봤어? ...

교차.

S#16-A 방송국 / 스튜디오 안 / D

남 여 사회자.

남진행자 박상연씨 ...
상연 네

남진행자 네 이미 눈가엔 축축하게 젖은 기가 흐르시는데요... 자 화면을 보시니까
 옛날 생각이 좀 나십니까 ...
여진행자 너무 오래되셔서 가물가물 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
상연 기억이 납니다... 모든게 또렷이 ...

S#16-B 방송국 / 로비, 복도 / D

여일 미친 듯이 사람들을 살피며 다니고 ...
울상이 된 얼굴로 승자가 부르던 노래를 부르며 승자를 찾는다.

여일 지금은 그 어디서 내 생각 잊었는가.....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지나가던 ... 스텝 ... 여일을 보더니 ..

스텝 (옆 다른 스텝에게) 양작가 롯데였어?

S#17 방송국 앞 / 도로 / D

관광버스에 할머니들이 줄서서 오르고 있다.
인원수를 체크하는 인솔자.
그중엔 승자도 함께 오르고 있다.

S#18 방송국 / 스튜디오 / D

상연 ... 뚫어져라 게이트를 바라보고 ... 숨을 멈춘 후 ...
고조되는 음악 ... 상연, 큰소리로

상연 하연아!!!!

음악과 함께 문이 열리고 ...
하연, 눈물 콧물 뒤범벅 철철 울며 나온다.
울며 나오는 하연에게 본능처럼 다가가 안기는 상연
두남자의 울음
아니다 하나 더 ...한 여자의 울음은 조금 떨어진 ... 방송국 현관 쪽에서 ...

인서트 / 방송국 현관

여일 ..엉엉 소릴 내며 ... “어머니 어머니 ... ”

S#19 도로 / 관광버스 안 / D

관광버스에 할머니들.

인솔자는 앞에서 겨우겨우 인원수를 파악하고 있다.

인솔자 아, 숫자가 이상하네...

운전사 왜? 뻑 해야돼.? 빨리 말해 ...

인솔자 아니요... 한 명이 더 있어요.

운전사 아니, 읊는 게 문제지 있는 게 뭘 문제여.

인솔자 아, 이러면 출연료가 모자르잖아요 ... 에이 씨 ... 왜 이러지 ...

인솔자 다시 종이를 보며 숫자를 세어보고 ...

할머니들 틈에 덩달아 춤추고 있는 승자가 보인다!

옆에서 함께 흔들던 할머니(정례)가 승자를 힐끗 몇 번 보더니 말을 붙인다.

정례 (강한 진라도 사투리로) 아니 근디, 이 할매는 첩보는 얼굴이여?

승자 (웃음).....

정례 아, 알았다. 여그도 대출 온거여. 그자?

승자?

정례 대리 출석! 미치겠네. 이게 뭐시라고 안 보른 졸업장 안준다고 협박을 해가지고
잉... 아, 요즘 한창 모내기에 밭 트기에 아주 디지겠구만 ...

승자 (웃음).....!

쿵짝쿵짝 신나는 트로트 음악 속에, 도심을 빠져나가는 관광버스.

S#20 방송국 / 스튜디오 / D

두 손을 꼭 잡고 휴지로 얼굴을 닦고 있는 ...상연과 하연 ...

하연 얼굴엔 휴지 조각이 붙어있다.

남진행자 먼저 우리 동생 분께 여쭙볼게요. 아버지도 그렇게 여의시고 얼마 되지 않
아 어머니와 형님도 떠나시고.. 혼자서 많이 힘드셨겠어요?

하연 (코를 풀며) 뭐, 말도 못했지요... 일곱 살짜리 얼라가 뭘 알겠습니까. 무섭고 배
고프고... 며칠 안되가 바로 고아원 뛰쳐나와 엄마랑 형아 찾겠다꼬 여기저기
안 다녀 본데가 없심더!

상연, 그 말에 잡은 손을 더욱 꼬옥 잡는다.
하연도 웃으며 상연의 손을 양 손으로 포개 잡는다.

하연 그러다..천운으로 덕 많고 공이 깊으신 계룡산 도양보살님을 만나가 지금은
 마 육천전안 신령님들 모시면서 무해무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진행자 아, 그럼 무속인시군요!
하연 뭐 ...종교인입니다 ...

순간!! 상연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핵 하연을 바라본다! 하연, 고개 끄덕이며 웃는다.

남진행자 자, 그럼 이번엔 우리 형님 얘기를 한 번 들어봐야겠죠? 타국에서 생활하
 시면서 또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요. 현재는 어떤 일을 하
 고 계신가요?
상연 (굳은 표정).....
여진행자 어머, 우리 형님께서 또 많이 긴장하신 것 같네요. 자, 여러분, 박수 한 번
 주세요!

방청객들이 웃으며 상연을 향해 박수를 보낸다. 상연, 빼질빼질 땀을 흘린다.
모두들 호기심어린 시선으로 상연을 주목한다.
상연, 머뭇머뭇 자꾸만 입술을 깨물더니 이내 결심한 듯 번쩍 고개를 들고는...

상연 저는... 한인사회에서 ... 목사로 있습니다!

순간 굳은 ...반응
연출, 방청객, 스텝들 ...
형의 손을 잡고 있던 하연의 손이 스르륵 풀린다.

cut to
방청객이 빠져나간 텅 빈 스튜디오.
남녀 진행자가 난감한 표정으로 서있고, 피디와 관계자들도 무대에 올라와 있다.
그 뒤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는 작가 여일.
하연, 흥분해 난리다.

하연 아니, 씨별...댁들 뭐하는 사람들인교!! 왜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 불러가 썩 이
 별을 하게 만들고 지랄이냐꼬!
피디 죄송합니다... (뒤의 여일을 찌려본다)

여일 아무말 못하고 고개가 숙여진다.

상연 (침착한 말투로) 지금...이 안에 계신 건 확실합니까?
피디 현재 방송국 내 모든 CCTV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선을 다해 찾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하연 아니 여가 무슨 산입니까 .. 여 있다며 와 못찾는데 ...
피디 피디로써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그때, 누가 황급히 오고 ...

씨피 안녕하십니까 ...
피디 오셨습니까 ... 저희 본부장님 이십니까 ...
씨피 말씀 들었습니다. 얼마나 상심이 많으십니까 .. 저희가 책임지고 ..어머님 찾으시는
데 ...
하연 아저씨가 (피디 가리키며)여기보다 됩니까?
씨피 아 ..네 .. 본부장 ...
하연 아니 도대체 이래 말도 안되는일이 ... 와 우리 엄마한테 일어나는데 ... 이게 사람
찾아주는 프로인교, 잃어버리는 프로인교!

그때, 국장 들어오고 ..

국장 아니 무슨일이야 ... 출연자가 행방불명 됐다니 ...
씨피 국장님 ..저도 얘기 듣고 내려왔는데 ...
국장 도대체 무슨일을 이따위로 하는거야!! 여기 스태프 몇 명인데 ...
하연 아저씨는 또 됩니까 ...
국장 아이고 .. 국장입니다.
여일 여기가 저기보다 위십니까 ...

여일, 하마터면 하연에게 맞을뻔했다.
그때 조연출이 헬레벌떡 뛰어오며 ..

조연출 찾았어요 ... 찾았습니다.

S#21 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 지나 / 차안 / D

조연출이 운전을 하고
하연 조수석
뒷자리에 상연 여일

하연 (신경질 적으로 담배를 꼬나물고) ... 참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겠네 ... 아니 어떻게 서울 한복판에서 없어진 양반이 천안에 가있는데? 사람을 뭘 전과 썰서 나른 것도 아니고 ..방송국 참 ...

상연 (의미심장하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서울에 계셨던 분이 갑자기 그렇게 멀리서 발견 되신게 ... 혹시 납치 같은거 당하신거 아닐까 .. (모두 상연을 본다) 아니 ..미국에선 자주 있는 일이라 ...

여일 이슬람 극우주의자들이 사람납치해서 교육시키고 자살테러하게 만든다는 얘긴 들어본 적 있어요 ...

하연 ...한숨만 푹 ...

조연출은 하연 눈치만 보고 ..

조연출 암튼 거기에 계신다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 좀 쉬세요 ..도착하시면 저희가 ..깨워드릴게요...

하연 뭘 쉬어? 뭘!! 엄마 이자뿌리고 두 시간도 안 되가 댁 같으면 잠이오나 ?? ...

조연출 아 ...예 ...

하연 (담배를 창밖으로 확 던지며 버럭) 똥두간에서 물 틀어 놓고 손 씻으며 잠이 오나 꼬!! 도대체!!!

상연은 말없이 ...그저 창밖만 ...

여일 ..그런 상연을 잠시 보다가 ...

여일 동생분도 말씀 좀 하세요 ... 멀리 미국에서 오셨는데... 그동안 쌓였던 말씀이라도

하연 (황당해서 벨트 풀고 뒤통다) 누가 동생인데 ... 내가 형처럼 보인다고?

여일 (번갈아보다가) 아, 맞다! 죄송합니다..한복을 입으셔서 그만...

하연 상연!! 하연!! ...상 하!!!

여일 아 그런 의미구나 ...

조연출 (운전하다말고 살짝 끼어든다) .. 저는 이름이 중식인데 ...

하연 상중하!!! 어휴 ...속에 천불이 나네 ... (눈치만 보다가 조연출에게) 음악이나 뭐 라디오라도 좀 ... 켜소 ..

하연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인다...

조연출 아 네

기독교 방송이다 ...

디제이 (소리만) 다음 찬양은 할렐루야 합창단의 노래입니다. 주를 만나러 가는길

하연 꺼 ...꺼

S#22-A 천안 휴게소 / D

인서트 / 천안 휴게소 집입 이정표 ...
창밖으로, 휴게소 간판이 보인다.

S#23-A 천안 휴게소 / 주차장 / D

카메라 시점으로 하연과 상연의 뒷모습 ..이리저리 관광버스를 찾아 올라탄다.

S#23-B 천안 휴게소 / 관광버스 안 / D

하연 (정신없이 버스를 뒤지며) 어딴노?... 여기 있다매?
노인1 아따 누굴 찾는다고 이렇게 오도가도 못 하게 하는 거여? 얼른 가서 개밥도 줘야
허는데.
하연 (버럭!) 아줌마...지금 이 상황에 개밥이 중요하요? 예?
여일 저기요 ... 죄송한데요 지금 저희가 어떤 할머니를 찾고 있는데요 베이지색 가디건
에 부산 말씨를 쓰시는 분인데 혹시 못 보셨습니까?

중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정례 할머니!

정례 아, 혹시 내 옆에서 고개 쳐들고 하늘에다 손가락 찢러대며 춤추던 노인네 얘기하는거
여 말하나? 어째 우리 동네 말투가 아니라 이상하다 했는디 ...

하연 ,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울상이 되어
말을 못잇는다.

하연 ...하늘로(찢러보이며) 손가락아 시발 맞네 ... 우리 엄마 ...하 시발 ...
정례 아, 맞는거? ..위매 ...아까맹키 .. 변소맹기 오문서 오메 .. 버스 찾는다꼬 ..맞다 저쪽
뒤로 갔는디 ...

상연과 ..여일 얼굴에 퍼지는 어두운 ...그림자.
울상이된 하연의 얼굴로 줌 들어가는 조연출의 6미리 카메라.

S#24 도로 / 달리는 영구차 안 / D

장지로 가는 김만재 의원의 영구 버스다.
운전자 옆에 승객들을 향해 놓인 커다란 영정이 보인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45도 각도로 앉은, 사람 좋은 웃음을 짓고 있는,
상복 입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있다. 그 중 금배지를 단 국회의원들도 보인다.
의원3이 버스 뒷유리로 살피더니 ...

의원3 기자들 ...계속 따라오는데 장지까지 촬영하려나 본데요 ...

의원1 (속삭이듯) 걱정할거 없어 .. 많이 나을수록 더 좋아. .기왕 이렇게 된거 다 꺾어지
고 가시는 겁니다. 김의원님 뜻을 헤아려 ... 이번 총선 다시 뒤집어 보는 겁니다...

의원2 더는 들추는거 없겠지요?

의원3 에이 ... 돌아가시면 공소권 소멸이라니까 ..

의원2 그래도 원체 이리저리 막 해먹으신 분이래 ...

의원1 어허 ...박의원! 돌아가신 분께 무슨 말씀을 그렇게 ... 혼자 다드셨나? ... 우리도 그
김에 여러 고비 넘겼잖아 왜그래???

의원3 자자 ...조용하시고 ... 열사가 되셔서 가신 겁니다. 여당 모함에 맘고생하시다가 한
을 품고 가신거로 포장하면 ... 이번 총선! 바람 불니다.

의원들 의지가 강하다.

카메라 이동하면 ...

버스 맨 앞에 앉아있는 고인의 부인도 보인다. 울다 지쳤는지 멍하니 뺨을 잃고 앉아있다.
그리고... 바로 그 뒷좌석에 승자가 보인다!

승자, 침울한 표정으로 말없이 영정을 응시하고 있다.

순간, 어디선가 아이들 울음소리가 조금씩 들리는 듯하더니...

눈앞이 흐릿흐릿... 사진이 조금씩 뭉그러지더니...

영정 사진이 어느새 남편의 사진으로 바뀐다!

그 앞에서 울던 어린 상연과 하연의 모습이 스쳐가고...

승자의 눈시울이 조금씩 붉어진다.

차남 (승자를 주시하며) 근데... 저기 저 분은 누구시지?

장남 (귀찮은 듯) 장지 가면 정신없을 거야. 눈 좀 붙여.

차남, 고개를 가웃하더니 이내 등받이에 머리를 대고 눈을 감는다.

이때, 갑자기 ‘호호호~’ 소리가 들린다!

장남과 차남, 동시에 눈을 번쩍 뜬다.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진다.

사람들 웅성거리며 일어서보기도 하고, 얼굴을 뻘뻘히 내밀어 쳐다보기도 한다.

고인의 부인도 이제 무슨 소린가 싶어 놀라 뒤돌아본다.

승자다!

승자, 울음을 참지 못하겠다는 듯 꺽꺽거리더니...

결국, ‘여보!’ 하며 무너진다.

버스 안의 사람들 일제히 혁!!!!!!

승자 애들은 위저라고... 나만 두고 가면 애들은... 으흐흐흐...

고인의 부인은 충격에 머리 짚고 쓰러진다. 아들들, 놀라 달려오고...
버스 안은 아수라장이다.

S#25 도로 / 갓길 / D

영구차가 갓길에 멈춰있다.

버스에서 조금 떨어져, 서있는 승자와 장남, 차남.

장남 아니 도대체... 아후 미치겠네...!

차남 형, 잠깐만...

돌아서는 둘.

차남 처음 출발할 땐 없었어, 분명히 없었다고!

장남 그럼 언제?

차남 휴게소...

장남 휴게소?

차남 (심각하게) 만만한 상대가 아냐! 우리 동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 치밀한 계획 하에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만약 그 배후가 저 노인의 자식들... 그러니까, 그게 진짜 우리 아버지 자식이라면... 우리 유산은 어떻게 되는 거지?

장남 아~ 아버지 진짜...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차남 췌! 뒤에 기사들 쫓아오고 있어! 자칫 잘못해서 이 모든게 세상에 알려지는 날엔 아버지도, 우리도 다 끝이라구!

장남 하, 돌아버리겠네... 어떡하지?

헐끗 승자를 돌아보는 장남과 차남.

잠시 후, 장남이 커다란 가방을 들고 온다.

승자, 멍하니 그런 장남을 쳐다본다. 뒤에서, 차남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다.

장남 (침착하고 공손하게) 아버지와 어떤 관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관계가 있으셨으니까 이렇게 먼 길을 오셨겠지요.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 아닙니까? 아주머니가 이러시면요... 저희 아버지 두 번 죽이시는 거예요!

승자 (멍하니 장남을 바라볼 뿐).....

장남 (가방 내밀며) 이거, 부의금 들어온 건데요... 잘 모르셨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생각보다 빚이 많으세요. 선거라는 게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또 꼭 써야 될 데가 있는 거거든요...저희 가족 그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마시고 일단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시죠.

승자, 무슨 말인가... 가만히 가방을 쳐다보다가 다시 장남의 얼굴을 본다.
보다 못한 차남이 다가와 장남의 손에 휴대폰을 넘기고 가방을 뺏는다.

차남 아, 근데 이 아줌마가 진짜! 저기요, 우리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말이야... 비밀스럽게 사랑을 했으면 끝까지 비밀로 물어주고 그래야지. 그게 진정한 사랑이지... 아, 몰라요! 우리 지금 빨리 아버지 묻으러 가야되니까 이거 받고 떨어지든지 고소를 하시든지 맘대로 하세요!

차남, 승자의 품에 가방을 안긴다. 얼떨결에 가방을 품에 안고 서있는 승자.

차남 자, 받았어요? 분명히 받으셨습니다! (장남에게) 얼른 찍어!...자, 이걸로 끝입니다. 이제 아주머니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는 없는 거예요, 아셨죠? 형, 빨리 타!

장남과 차남이 급히 버스에 오르려하는데...
우당탕 아버지 영정사진이 차 밖으로 떨어진다!

장남 (얼른 영정사진 집으며) 에이 참, 엄마... 진정하시라니까...

장남과 차남이 버스에 오르고, 영구차는 부릉 출발한다.
승자, 돈 가방을 든 채 갓길에 홀로 멍하니 서있다.

S#26 인서트 / 차안 대화 나눌 수도

낙조에 달리는 [지금 만나러 갑니다]차량 ...
힘 빠진 ...차안 사람들 ...

S#27 방송국 / 복도 / N

남자 셋이 걷고 있다 .

국장 못 찾았대지?
피디 네 ...

국장 그러니까 ...그게 어디 쉽나... 카메라 딸려 보냈지?
피디 네 .. 오히려 잘만하면 한회 분량 나오겠는데요...
본부장 아다리도 잘 맞은거 같습니다. 5월8일에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은 두 형제 이야기 ..
 뭔가 짜릿한대요 ..
국장 담주에 편성 없다 ... 잘못되면 동물의 왕국 나간다... 긴장들 해라 ...
피디 네 ...

S#28 하연의 마을 입구 / N

방송국 차에서 상연과 하연이 내린다.
여일이가 얼른 내려 상연의 트렁크를 받는다.
하연 차에 붙어있는 ‘지금 만나러 갑니다.’ 프로그램명을 못 마땅한 눈으로 보고 있다.
조연출은 슬쩍 카메라를 들고 그들을 찍고 있다.

여일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모든 버스에 대해 수색요청을 해 놓았으니까 곧 연락이 올 거
 예요.
하연 (비꼬우듯) 참 잘 했네요... 허이고 ...
상연 (하연 보며) 그러지 마라.. (여일을 보며 인자하게)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연 (조연출 카메라가 거슬린다) 아까부터 뭘 찍노?
여일 아 ..예 .. 아까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 두형제분들이 어머니를 찾아다니시는
 모습을 방송에 내보내면 훨씬 빨리 어머니를 찾지 않을까 해서 ...
하연 우리가 또 나오는기가??? ... 이제 우리 형제도 찢어뜨릴라꼬??
여일 아니요 ... 진짜로 ... 사람 찾는 데는 방송만한게 없습니다.
하연 다 저질러 놓고 뭘 소릴 하는기가??? 저 프로그램 이름부터 바뀌라 마.. 아주 재수
 가없으니까...
상연 이렇게라도 해보자 하연아 .. 어떻게든 얼른 찾아야지 ..
하연 ...후 ...

상연의 눈치를 한번 보다간 ... 뒤돈다.
조연출과 여일 마주보며 다행이란 한숨 ...
그때, 하연 다시 뒤돌아 ...

하연 아니 그라도 우리 집까지 간다꼬?
조연출 네 ...
하연 근데 와 내리노??? ...(차를 가리키며) 저 재수 없는 차로 계속 가면 되는데 ...
조연출 아 네 ... 이게 다큐처럼 찍는 거라 ... 집을 향해 멀리 가시면서 사라지시는 모습
 찍고 차타고 다시 가셔서 집에 들어오시는 거는 제가 먼저 집 안쪽에서 이렇게
 찍고 ...그래야지 실감나는 거라 ...

하연 어이없다는 듯

상연은 관심 있게 ...

상연 (목소리 쉼쉴게) 아 .. 그렇게 이어 붙이면 .. 아 진짜 같겠군요...

여일 그렇죠 ..

상연 그림 나중에 저희가 집에 들어갈 때 ..약간 숨차하며 피곤한 듯, 해야 하지 않을까요?...

조연출 아, 방송 아시네요...해보셨죠? 이런거 ...

상연 허허 ...아니요 아니에요

하연 난리 났네 .. 명작이 나오겠네.. 명작이 ...

S# 29 하연의 집 / 마당 / N

하연과 상연이 땀 흘리며 들어오고 ...그 모습을 조연출이 ... 안에서 먼저 들어와 촬영하고 있고 ...

상연 (집을 둘러보며) ...이곳이 너희 집이구나? .. 좋다 참 ... 타운 하우스구나 ...

하연 (상연을 물끄러미 보다. 억지로 웃어 보이며) ... 사당 이라예...

cut to

상연 마루에 앉아

색 바랜 도화지를 보고 있다....

빼곡히 보여 지는 야구선수들의 스티커들.

하연 그거 기억납니까?!...

부드러운 하연의 목소리.

상연, 돌아보면 하연이 방긋 웃으며 서 있다.

상연 응...아직 안 버렸네?...

하연 하모예...형과의 유일한 추억 입니데이... 후후..고아원에서 도망치는데도 그거는 챙겼다 아입니까...

상연, 그 말에 웃으며 하연의 어깨를 툭툭 두드린다.

그런 상연을 보며 미소를 띠어 보이는 하연..그때...

조연출 ...네 ...컷 ...종습니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떨어지는 두사람.

하연 야구의 야자도 모르는 놈한테 ... 그건 또 언제 준비해가 가꼬 왔대 ...

조연출 소품 팀에서 ...

하연 짐 푸시고 저쪽 방으로 들어가이소 ...보일러 꺼놔서 좀 추울 텐데 금방 열은 올라
가니 ...

상연...집안을 둘러보며 하연이 얘기한 방으로 옮겨가고 ...

조연출, 여일에게 카메라를 건네며 ...

조연출 저기 일단 ...오늘은 양작가가 마무리로 찍어라 ...

여일 가게요? 먼저?

조연출 찍은거 매일매일 편집해서 올리래 ...나도 꼴까닥이야 ... 방 많다 오늘만 자고 내일
올게 ..

여일 참도 오시겠다 ...

조연출 씨익 웃으며 ... 휘리릭 사라진다.

S#30 고속도로 / 달리는 견인차 안 / N

운전하는 견인남.. 옆에는 커다란 가방을 든 승자가 앉아있다.

견인남 아니, 어떤 호로 새끼들이 노인네를 이판테다 버리고 가? 어딴슈? 이놈 새끼들..
(흥분해서) 갓길에 있어도 여 트럭들 180놓고 썸 달리면유 ..송아지만한 숫 고라니
도 중심 못 잡고 픽픽 쓰러지는 데가 여기유.. 왜 가끔 피도 안 났는디 죽어있는 개,
고양이들 있쥬?...그게 다 그래서 돼진거라니께유.. 이건 무조건 살인 미수유.. 살인
미수..

승자 아휴...내가 마 기차를 잘못 타가 이쪽으로 왔네..

견인남 아니, 뭔 기차를 잘못 탔길래 로 한복판에 내려유? 뭐 은하철도 999 탔슈?

승자 글씨, 번호는 잘 못 봤는디..

견인남 참..어떻게 이 와중에도 자숙 편을 들어유? 됐구유..아무 소리 말고 집주소 대유..내
가 아주 일이건 뭐건 이것들을 잡아서 다리 뭉뎅이를 뽐질러 버릴텐께...

그때, ‘치지직~’ 무전기에서 잡음이 들리더니.. 대전 나들목 부근 5중 추돌 사고가 났다는
경찰들의 무전소리가 긴급하게 들린다. ‘5중 추돌...’

견인남, 앞을 보려고 애를 쓰지만 자꾸만 무전기 쪽으로 시선이 간다.

S#31 하연의 집 / 안방 안 / N

여일은 카메라를 삼각대에 세우고 있고 ..

하연, 상을 차리고 있다...

상연 안방, 이곳저곳에 붙어있는 노란 부적들을 암담한 눈으로 보며 ‘후~’ 한숨을 쉬는 상연.

상연 근데 넌 어찌다 이런 일을... 하게 된 거니?

하연, 황당한 표정으로 상연을 보더니...

하연 저기...그런 말은 교도소 같은데 면회 가서나 하는 말 아닙니까? 너 어찌다 사람을 죽였냐? 어찌다 이 모냥 이 꼴이 됐냐?... 이럴 때 쓰는 말 아니냐고? 내 지금 뭐 못할 짓 했습니까?

상연은 뭐라 말하려다 폭 한숨을 쉰다.

하연 (갑자기 카메라 설치하는 여일을 보고) 우짜다가 그런 일을 하는교?? ...

여일 ...네?

하연 좋은교? 이런 말 들으면 ...?

여일 ...기분 드러운데요

하연 맞쵸? ... 그쵸??

여일 아 ..전화가 ...

여일 나간다

S#32 하연의 집 / 마당 / N

여일이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다. / 남자는 그림을 그리는 화실 분위기의 공간에 있다.

여일 그렇게 일이 이렇게 꼬일 줄은 몰랐네...미안 ... 근데 내 잘못인데 어떻게 해 .. 미안해서 고개도 못 들겠는데 ... 작업실에서 밤새울 거야?

남자 그래야지 ... 덕분에 생일에 일도해보고 좋은데 ...

여일 그렇게 말하지마.. 더 미안하잖아 ...

남자 걱정 말고 일 잘 마무리하고와 ...

여일 밤새우지 말고 적당히 하다가 들어가 ... 내일까지 연락 없으면 잠깐이라도 올라갈 거니까 ... 그땐 꼭 보자 ... 응 ... 나도

전화 끊는다... 기분 좋아진 얼굴 ...

S#33 하연의 집 / 안방 / N

여일이 들어온다 ...

상 위에는 반찬들 ...

모락모락 연기가 나는 커다란 닭백숙을 하연이 들고 가운데 올려놓는다.

하연 그냥 알아서들 들고 뜯으세요 .. 아메리카 스타일로 따로 풀라면 이 맛이 또 안 나니까 ...

여일 우와 이걸 ... 언제 ...냄새도 그냥 백숙 냄새가 아니다 ..뭘 많이 넣으셨나봐요??

하연 이게 기본이요 ... 어디서 말도안되는 닭국만 먹었나보네 ... 드소.

여일 ..하연 ...숟가락을 드는데 ...

상연 손을 모은다

자세를 고쳐 무릎을 꿇더니 기도 자세를 취한다.

상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연 기분 나쁜 듯 ... 카메라를 슬쩍 돌려 벽에 붙은 조자룡장군의 초상을 잡는다.

상연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연 (고기 뜯으며)닭은 내가 잡았는데 누구한테 감사하대?

여일은 숟가락만 들고 먹진 못하고 기다린다.

상연 오늘 하루도 이렇게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연 참말로 살다살다 이런날이 없구만! (괜히 여일을 보고) 평안합니까 오늘?...

상연 특별히 오늘은 동생을 만나...

하연 아, 속으로 하소, 속으로! 곳당에서 매너가 있지!

상연 (스브스브 속으로 기도하더니).... 아멘.

상연, 눈을 뜨고 고기를 한점 먹는다.

시장기가 돌아왔다. 맛있게 입에 넣으며 ...

상연 하 ...정말 맛있다. 혼자 살아 그런지 음식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나

하연 내가 한 거 아니요... (백숙을 뒤적거리며) 이틀에 삼십분 꼴로 정신이 돌아오는데 ..고 타이밍에 형 오면 뜨신 국물 맥인다고 닭 잡으랍디다. 이 엄동 산골에 전복이 어딴다고 ... 그거 구해 넣어야 형이 좋아한다꼬 ...

상연 .. 숙여진 고개가 들어지지 못하고 어깨가 대신 들썩인다.

우나보다.

여일 ... 손을 뺀어 카메라를 끈다.

S#34 마을 입구로 가는 길 / N

어두운 밤 ...후레쉬 들고 가는 하연 ...

으스스한 분위기 ...

하연 갈라든 진작 가지 늦어가 차가 있을라나 모르겠네... 요 밑에까지 가가 택시타소 터미널 가면 막차는 잡겠네 ...

여일 죄송해요 .. 아무래도 자고 가기엔 너무 패를 끼칠까봐 ...

하연 와? 꺼려지나? ...귀신 들릴까봐?? ...

여일 하시는 일도 그렇고 ... 이런 밤길은 안 무서우시죠?

하연 내가 켈로 무서워 하는게 밤길입니다 ...

여일 아 ...

하연

여일 진짜로 귀신 보신 적 있으세요? ... 보시면 얘기도 하고 그래요? 진짜로?

하연,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후레쉬를 끄고 여일을 뚫어지게 본다.

여일 왜 ...왜요?

하연 (귀신처럼) 내가 ... 지금 ...사람으로 보여?

여일 어두워서 잘 안보여요 ...

하연 (다시 후레쉬를 켜고 걷는다) .. 에휴 ... 어디 한테서 바람맞다가 가시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 ...

여일 얼른 찾겠습니다.

하연 ... 여름 오기 전에 이별수가 보입니다. 아가씨 눈썹 ...사이로 기운이 막 땡기네

여일 제 얼굴예요? ... 제 얼굴 ..그렇게 자세히 보셨어요? ... 어머 ...언제 그렇게 보셨어요? .. 저랑 눈도 잘 안마주치시던데 ... 호호 ...

하연 뭘 말을 하면 왜 자꾸 핵심 옆쪽으로만 땡기나 ...??? 참나 ...

하연의 걸음이 빨라진다.

S#35 하연의 집 / 마당 / N

들어오는 동네 건달 백마 무리들 ..

백마 박무당 계신가? ...
 상연
 백마 점 보러 오셨나? ...이 무당 지 인생도 모르는 인간인데 ...뭐가 믿을만해서 오셨나?
 상연 누구신지?
 백마 박무당 없나? 노인네도 안보이네 ...
 상연 잠깐 ...
 백마 손님이 아닌가보네 ...누구슈? ... 빛 받으러 온 얼굴은 아닌데 ...
 상연 ...형 되는 사람입니다.
 백마 형이 있었어? ...
 상연 있었습니다 ... (눈빛)
 백마 동생 오면 전해주시와요 .. 집 비울 날이 보름이 넘었다고 ... 며칠 더 지나면 관
 속에서 본인이 본인 곳 하게 될 거라고 ...

백마 우리들 간다 ...

S#36 하연의 동네 / N

택시를 타는 여일 ...
 출발하는 택시
 가는 택시를 보는 하연 ... 그냥 ... 아무 느낌 없는 듯 ...
 근데 웬지 오랫동안 사라져 가는 택시를 본다.

S#37-A, B 하연의 집 / 안방, 마당 / N

하연, 이부자릴 펴고 있다.
 상연은 마당에서 미국으로 통화하는지 ...영어로 유창하게 핸드폰에 얘기중이다.
 하연이 문을 열고 마당에서의 상연을 본다.

S#37-C (과거 인서트) - 여수론 보육원 / 원장실 / D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는 어린 하연
 안에서는 외국인 부부와 원장 .. 그리고 그 앞에서 뭔가 열심히 말을 하며
 손짓발짓으로 웃으며 떠들어 보이고 있는 어린 상연의 모습 ..
 그 모습을 보며 ... 하연의 얼굴이 굳어간다 ...

S#37-D (과거 인서트) 여수론 보육원 / 앞마당 / D

상연이 ... 외국인 부부와 같이 서있고 ...
이리 저리 아이들 속에서 하연을 찾는다.

원장 상연 ... 가야지 ..비행기 시간이 급하시단다 ...
상연 (울상 된 얼굴로) 하연이가 안보입니다 .. 하연이를 보고 갈기라예 ...
원장 (억지웃음으로) 얘기 하셨잖아 ... 다음 달에 다시 오셔서 동생도 데리고 가겠다고
... 자 어서 .. (다가가 인상 쓰며) ...여기서 잘못되면 너희 형제 둘 다 영영 기회 없
는 거야 .. 멍청아 빨리 올라타 ...

상연, 원장을 보다가 ..힘없이 차에 오른다 ...

S#37-E (과거 인서트) 여수론 보육원 / 화장실 / D

하연 ... 웅 웅 ...토를 하고 있다.
그러다가 고개를 든다.
얼굴엔 콧물 눈물 투성이다.
거울속 자신을 본다 ...

S#37-F 다시 하연의집 / 마당 / N

사이.

상연 ...통화를 끊고 .. 뒤돌면 자신을 보는 하연

상연 영어 쓰니까 이상하지? ...어색하지?
하연 우리말 할 때 사투리 안 쓰는게 더 이상 합니다 ... 들어오소 ...

S#37-G 하연의 집 / 안방 / N

형제의 잠

잠이 들지 못한 채 둘은 ...눈만 깜빡 ...

상연 결혼은 아직 ... ?
하연 이게 뭐 결혼하기 쉬운 직업이요? ..형님은 했나보네?
상연 이건 결혼을 안 하면 어려운 직업이라...

하연 형수는? ... 노랑머리에 파란 눈 뭐 이런 양반입니까?
 상연 초록 눈이다... 아들 하나...있고 ...
 하연 엄마 알면 좋아하겠네... (표정 어두워지며) 하긴 형도 못 알아볼 판에 손자라고 알아보겠소...
 상연 언제부터 그렇게 되셨니?
 하연 찾고 찾고 찾다 연락 와서 가봤더니 치매노인 요양습니다. 노인네가, 어디서 뭘 하고 살다 글루 쫓겨 왔는지, 돌봐주는 놈도 하나 없고... 웬 놈의 약값에 병원 값에.. 내가 아주 그 돈 매우느라고 하루에 굿 세 탕씩 뛰느라 이 허리관절이 다 나갔소.
 상연 (놀라며) ...굿도 하니?
 하연 (어이없다는 듯) .. 굿만 합니다! 굿 전문입니다 내가!

사이 ...

하연 주무이소 ...내 건너가 자께 .. 누구랑 누워본지가 하도 오래 되가 못 잘지 싶네 .. (일어나려는데)
 상연 아까 어떤 사람들이 왔었는데 ... 집을 비우라면서 ... 무슨 문제 있니?
 하연 .. 내는 집주인이고 ..그마들은 산 주인이라카는건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써가 산 사람들 괴롭히고 그거에 지른 혈값 받고 ...내쫓기나는건데 ... 신경 끄소

S#38-A 서울 / 여일 남자 친구의 작업실 복도 / N

손에 와인 한 병을 든 여일이 ... 생일카드와 함께 ... 재미난 표정으로 ... 걸어간다.
 복도 끝 문을 향해...

S#38-B, C 서울 / 여일 남자 친구의 작업실 안, 복도 / N

문이 뻐끔히 열린다.
 문틈으로 미소 띤 여일의 얼굴이 ...
 그리고 그녀의 눈엔 ... 다른 여자와 반쯤 벗은 채 뒹굴고 있는 자신의 남자 ...
 여일 ... 천천히 둘의 신음 소리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가만히 굳어지는 여일.
 천천히 눈이 감긴다

또
 자
 나 ?

그러다가 입술이 울상이 되어 다시 눈이 떠진다.

왜 이럴 땐 잠이 오지 않는 걸까 라는 표정
눈물을 참지 못한 채 뒤돌아 문을 닫는다.
다시 복도를 걸어가는데 ...
손에 쥔 와인 병이 툭 떨어진다.
병이 깨지며 ... 붉은 와인이 복도 바닥에 퍼뜨려진다.
그 위로 떨어지지 않은 카드와 선물 박스도 ...
여일, 손으로 자신의 눈썹주위를 자꾸 쓸어 닦는다.
이별수를 지우듯 ...

S#39 방송국 / 편집실 / N

두 대의 모니터

한 대에선 찍은 자료 영상들이 조연출의 손에 의해 편집중이고
다른 모니터에선 상연의 인터뷰 자료가 나온다.

(소스A - 상연 인터뷰)

상연 미국에 도착하고 얼마 안 돼 미국형과 양어머니가 사고를 당했어요. 재수 없는
한국인 애새끼 때문에 가족을 잃었다고 생각 한 양아버지는 알코올 홀릭에 빠져 버
렸고, 결국 정신분열증으로 병원에 감금 됐습니다.. 저는 다시 고아가 됐죠 ...

S#40-A 하연의 집 / 하연의 방 / D

아직 채 동이 트지 않은 ...
자고 있는 하연의 머리맡에 ... 핸드폰이 울린다 ...

하연 ...(눈이 떠지지도 않은 채) ... 네 ... (눈이 떠진다) ...어디서? ... 대전요? ... 아니 밤
새 어디서 워티게 잤길래... 대전에 ...

S#40-B 방송국 / /D

반대편 ... 통화 인서트

조연출 저희도 아직은 모르는데 ..암튼 거기서 제보가 와서요 ... 양작가가 먼저 가 있을
거구요 ... 행여 맞으면 ... 저희도 곤장 가겠습니다.

S#41-A 하연의 집 / 안방 / D

문이 열리고 ... 하연 .. 비어진 이부자리를 본다.

옆쪽 목욕탕에서 물소리 ...

똑똑 ...

하연 씻는교? ...

상연 (소리만) 어? ...어 ...

하연 아따 새벽같이 인났네 ... 시간대가 달라 그런갑네요 ...뜨신물 잘 나오니까?

상연 어 .. 좋구나 ...

하연 엄마 비슷한 양반 봤다꼬 ...대전에서 연락이 와가 ...가봐야 될지 싶은데 ..

S#41-B 하연의 집 / 목욕탕 / D

상연 (샤워기 꼭지를 잠그고) ... 그래? ... 얼른 나갈게 ...

상연 잠시 고개를 떨구며 기도하듯 감기는 눈

뜨거운 물의 김이 조금씩 사라지고 ...그제서야 상연의 나신이 보인다.

온몸에 문신 .. 상처 자국들 ...

다시 들리는 샤워기 물소리 ...

S#41-C 하연의 집 / 다시 안방 / D

하연이 주섬주섬 옷을 입으려는데 ... 세워져 있던 ... 카메라가 .. 툭 쓰러진다.

하연 ... 카메라를 .. 주워 ...

액정을 열고 리와인드를 한다.

그리고 플레이

화면 속 ... 형을 본다.

하연 화면 잘 받네 ... 보니까 원래가...이런 걸 좋아하는 양반인기라 .. 어째 카메라 들이
대는데 이리 자연스럽노 .. 내는 어색해 미치겠구만...

그러다가 옆에 카메라 가방에 여러 테이프들을 보다가 하나를 유심히 본다.

겉면엔 [박상연, 인터뷰] 라고 써져있다.

틀어 본다 ...

액정화면(소스A - 상연 인터뷰)

상연의 미국집인 듯 보이는 공간 .. 앉아있는 상연이 보인다.

귀에는 이어폰을 끼고 ... 컴퓨터 모니터를 보는듯한 시선으로 ... 인사를 한다.

상연 안녕하세요. 박상연입니다.

(화면은 살짝 편집 된 것처럼 ...톡톡 튕다)

상연 저는 아홉 살에 미국으로 입양되어 왔고 ...어머니와 친동생 .. 두 살 어린 남자동생을 찾고 있습니다.

상연 저는 지금 한인 교회 목사로 있고 ..가족은 미국인 아내와 아들이 .. 네 서류에 적었던 그 아이입니다.

그때, 목욕탕 물소리가 그치고 ... 상연의 소리 ...

하연, 일어나 옷을 입는다.

S#42 고속도로 / 고속버스 안 / D

버스 안의 두 형제 ...

웬지 조용히 ... 멍하게 창문을 응시하는 하연이 이상해 보이는 상연 ...

S#43 대전 터미널 안 / D

안으로 들어가는 형제 ...

먼저와 기다리던 여일이 형제 앞에 선다.

하연 여 있나?

여일 아뇨 그게 .. 관리실 직원이 어젯밤에 봤다는데 ... 일단 그분을 좀 만나시죠 ...

하연 천천히 관리실 쪽으로 옮기는데 .. 여일 얼굴을 다시 한 번 본다.

하연 울었네 ...밤새도록 ...

여일 네?

하연 그냥 가던 곳으로 향한다.

상연 뒤따른다.

여일 ... 멍하게 그를 본다.

S#44 대전 터미널 / 관리실 / D

직원 궁게 렉카차에서 탁 내리시드만 ... 막 그냥 눈을 해집고 ... 표 끊는대로 가는데 ..내가 일단 말렸지 .. 할머니 된 일인데 이렇게 .. 정신없이 신창원이 탈주하듯 땡기로 이러시오 하니깐 그냥 ...대꾸도 없이 사라진거여 ... 그래 이게 뭘 일인가 렉카차 쪽을 탁 봤더니 ...아 렉카차 기사가 “쌍놈의 새끼들 엄니를 버리고 토까부렸어” 이 말만 남기고 렉카차도 그냥 ...쏜살같이 내뺄 버리는거여 ...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 내용인가 하던 참에 ... 인자 전단지를 탁 본게 이 할머니네 ...

상연 돈도 없으셔서 표도 못 끊으셨을텐데. ... 그럼 아직도 터미널이나 이 근처에 ... 계시겠네요 ...

직원 이쪽 안쪽엔 없으실거 같은디 ...

하연 그 ... 렉카차 ...번호 좀 수소문 해보소 ...

S#45-A 대전 터미널 안 / D

하연 아니 ..그 싸가지없는 새끼는 노인네를 모셨으면 경찰서나 집으로 데려다 줄 생각을 해야지 .. 이 사람 많은 곳에다 떨귀 .. (여일보고) 안 받아요?

여일 (부동자세)

하연 어이!!!! (돌아서 여일의 얼굴을 본다.) ... 자네 ... 돌아뿌리겠네

여일의 전화기를 뺏어서 들어본다.

하연 ... (한숨 쉬며 ..여일을 보고) 이 생물.. 이거 곧장 염해서 물어 버려도 누가 뭐라고래? 응? ..인나라 !!!

여일 화들짝 놀라 켠다.

S#45-B 대전 터미널 안 / D

여일은 열심히 전단지를 사람들에게 돌리고

조연출은 여일에게 뭐라 애길하고 ...하연에게 고개인사만 하고 나간다.

하연과 상연은 힘없이 대합실 의자에 앉아있다.

전단지 ... 사진을 보고 있는 상연 ..

엄마 얼굴이다.

반대, 터미널 구석 의자에 ..

철학형제가 앉아있다.

철수 (학수를 툭 치며) 저기...!

고개 들어보면, 건너편 의자에 힘 빠진 하연과 상연이 ... 앉아있다.

학수 저 남자들?

철수 그래, 저 두 사람이 어떤 관계로 보이냐?

학수 글썄... 뭐 가까운 사이 같이 보이진 않는데?... 양복이랑 한복도 안 어울리고 ...

철수 (하연을 가리키며) 저 사람은 십중팔구 국악인이다. 그것도 잘나가는 예술인일 거야. 앉아있는 포스가 심상치 않잖나? 단오에 맞춰 공연이나 지방 행사에 가는게 틀림 없어. 아니면 대전 공연 끝내고 돌아가는 길인거 같아.

학수 그럼 양복은??

철수 매니저겠지. 얼굴도 좀 어려보이는게 잘 아는 동생인데 어찌다 할 일도 없으니 일 봐주며 옆에 있는 걸 거야.

학수 근데 잘나가는 국악인이 불러 다니며 공연도 하는 사람들이 차도 없이 버스를 타고 다닐까?

철수 그 또한 좋은 지적이다! 누구나 한번쯤 의심을 가져볼 법한 일이지만 의외로 답은 간단하다... 이런 빅시즌엔 저런 사람들은 스케줄이 많기 때문이지!

학수 근데?

철수 오늘은 5월5일. 어린이날이다. 휴일에는 차가 막힌다. 하지만 예외가 있지. 바로, 버스 전용차선!

학수 (감동해서) 아, 허영...!

철수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의 경우는 마음이 급해서 주의가 흐트러지기 쉽다는 허점이 있다. 우리는 바로 그 점을 노리는 거다. 어 ..일어났다. 행동개시... 넌 양복 ...한복은 고난이도다 ...형이 할게 ..

한편, 상연과 하연. 일어나 여일 쪽으로 가려는데 ..

이때, 상연과 하연을 툭 치고 지나가는 철학형제!

그 바람에 상연이 펍 넘어진다.

상연 읊쓰, 쏘리!

철수 (멈칫하며) 어이구, 제가, 죄송합니다...

철수, 상연을 일으키며 지갑을 슬쩍!

학수는 그 틈에 하연의 지갑을 슬쩍!

하연 아, 거 좀 잘 보고 탕겨야지...(상연에게) 괜찮아요?

학수 죄송합니다... 그럼...

학수, 얼른 앞서가는 철수를 따라 나간다.

하연, 상연의 옷을 털어준다! 그러다 상연과 눈이 마주치자 멈칫하더니 흠흠!

하연 (어색해져) 흠흠!! 아 목이 왜 이래... 가만 음료수 파는 데가...

하연, 앞서 걷는다. 피식 웃더니 따라가는 상연.

S#46 터미널 근처 / 후미진 골목 / D

철학형제가 소매치기한 지갑의 내용물을 살피고 있다.

철수, 상연의 신분증에 나와 있는 pastor란 글자를 휴대폰으로 검색한다.

학수 뭐라고 나와?...

철수 가만있어봐... 티,오,알... (얼굴이 굳어진다)

학수 뭘데? 응? 형사는 아니지?

철수 목사...

학수 목사?... 목사 아니고 목사?

철수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좀 찝찝한데... 안되겠다, 네 거 봐봐!

학수 내 건 뭐... 그냥... 돈하고, 차표하고... 이게 뭐야? 주민등록등본이네... 아무튼, 그리고...

철수 왜?... 왜?

학수 (지갑 속에서 부적을 꺼낸다).....!

철수 (멍하니 보다가) 괜찮아, 괜찮아, 요즘엔 다 부적 한 장쯤 넣고 다니잖아...

학수, 또 한 장... 또 한 장... 계속해서 꺼낸다!

쩍, 입 벌어지는 철수!!

S#47 대전 터미널 안 / D

한숨을 쉬는 상연.

사이를 두고 조금 떨어져 앉아있는 하연.

그들을 카메라로 담고 있는 여일 ..

상연 (한숨 쉬며) 주여...!

하연 그러게 원래 손 있는 날은 이라고 나뎡기는 게 아닌디...

상연 아버지...

하연 (버럭) 주여, 아버지 소리 좀 그만 하쇼! 내는 뭐 부를 신이 읊어서 이라고 있습니까? 사람이 말이야, 옆에 있는 사람 생각도 하고 그래야지...

좀 끄소 ...이게 뭘 감동적인 스토리라고 이걸 찍고 있노?
여일 저 .. 돈 좀 있는데 .. 빌려드려요?
상연 아니 ..괜찮습니다. 저희도 현금은 좀 있습니다.

상연, 말하고 하연을 본다 ...
하연 ????

상연 (고개 숙이고 작은 소리로) 다시 집으로 갈 차비만 있으면 되는데 ...
하연 (여일을 보고) 오만원만 빌립시데이.
여일 오만원이요? .. 가만 그럼 찾아와야 되는데 ...
하연 장난치나 ... 아니 그카문 얼마가 있는데 .. 돈 있다고 켜기가?
상연 (어딘가 두리번대더니) ...저쪽에 ...

상연 ATM 기를 가리킨다.
여일, 상연이 가리키는 곳을 보고 일어난다.

S#48 대전 터미널 안 / D

철학형제가 들어선다.

학수 형,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철수 지난 번 승필이 예배당에서 오르간 훔쳤다가 어떻게 됐니?
학수 낙원상가에 팔러 갔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오르간에 깔려서 갈비 여섯 개 ... 와작.
철수 대식이, 급하다고 스님 시주가방 들고 뛰다 어떻게 됐니?
학수 (놀라) 대식이 애긴 하지말자...
철수 부산 가는 버스에 치여 날아온 걸 광주 가는 버스가 받았어! 그나마 숨이 붙어있는 게 부처님의 자비라면 자비다. 그날이후 형은 다짐했다. 신의 영역엔 우리가 도전하면 안된다고 ... 가자, 가서 제자리에 돌려놓기만 하면 아무 일 없을 거야.
학수 할 수 있을까? 내 이십 평생 빼보기만 했지 넣어본 적은 없어서...
철수 역순으로 하면 된다.
학수 형, 잠깐만... 그럼 어머니 수술비는?!
철수 (문득 얼굴 굳어졌다가 다시 풀리며) 그래도 이건 아니다. 형이 더 열심히 할 게 ...가자 얼른 ...

냉랭한 얼굴로 대기실에 앉아 티브이 모니터에 시선을 두고 앉아있는 상연과 하연.
그때, 두 사람을 사이에 두고 슬그머니 앉는 철수와 학수.
은밀히 지갑을 꺼내 각각 상연과 하연의 주머니에 넣으려 한다.
고도의 긴장감이 흐른다. 반쯤 들어갔을까...

쿵쿵쿵 달려오는 소리가 나더니...

여일 강도야!!!!!!

철수와 학수가 쳐다보면 바로 옆에 헉헉대며 서 있는 여일.
스르륵~ 철수와 학수 손에 반쯤 들린 지갑에 시선이 멈춘다.
상연과 하연도 스윽 각자의 옆을 본다.
근처 수많은 사람들이 여일의 큰 소리에 이쪽을 본다.

S#49 대전 경찰서 안 / D

어처구니없는 표정을 짓는 경찰1.
그 앞에 철수와 학수가 앉아있다.
상연 일행은 뒤쪽 의자에 앉아있다.

경찰1 그러니까... 너 지금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는 거냐?
철수 물론 안 믿어지시겠지만 진짱니다. 정말 빼는 게 아니라 넣는 중이었다니까요.
경찰1 허, 미치겠네! 그래, 니들 말대로 넣는 중이었다고 치자. 아니, 지갑을 주웠으면 얼 굴 보고 직접 갖다 주면 되지, 니들이 무슨 썬타냐? 몰래 넣어주게?!
철수 저희가 워낙 솜씨가 없어서요... 둘 다 A형이거든요!
경찰2 (철수 머리 때리며) 야, 이 자식아! 솜씨 없는 놈이 전과5범씩 달고 살아?
경찰1 5범이나 돼?
(철수 학수는 샘을 해본다)
경찰2 그나마 미수는 스무 건도 넘어요.
경찰1 이노무 자식들, 안되겠네... 당장 넘겨버리지!
상연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분들, 그냥 보내주시죠.
하연 모라깝니까 지금?
상연 저 사람들이 지갑을 훔쳤건 안 훔쳤건, 중요한 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돌려주려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연 평소에 아름다운 거 잘 못 봤어요?
학수 맞아요... 침엔 엄마 수술비가 급해서 그냥 주운 돈을 갖을까 생각도 했지만 아 이 건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니다 싶어 .. 다시 돌려드리려고 간 거라구요...
경찰1 시끄러, 자식아! (상연 보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현행범으로 잡혀온 이상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론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상연 지갑을 빼다 걸린 것도 아니고, 넣다가 걸리는 건 무슨 범죄입니까?

경찰 둘, 서로 얼굴을 쳐다본다. ‘글쎄요, 그게...?’

S#50 대전 경찰서 앞 / D

상연 일행과 철학형제가 함께 나온다.

철수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진실이 밝혀져서 얼마나 다행인지...

하연 뭐 누명 쓴 거 벗겨졌나? ...

철수와 학수, 고개를 푹 숙인다.

상연 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십니까?

철수/학수

하연 조상 덕이 있어가 조실부모할 상은 아닌데...

그때, 상연이 철수의 손을 잡는다. 그리고는 학수의 손도 잡아 포갠다.

당황하는 철학형제...

상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은 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햇빛도, 공기도 짐승과 열매도...

하연 (옆에 앉아있는 여일을 보고) 뭐하노? 이런 걸 찍으란 말이야!!

여일 아, 하며 일어나 카메라를 찍는다.

상연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건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땀 흘리고 수고하여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연 좋은 소리는 다 하나님이 했다... (괜히 여일 보고) 아냐? .. 몰라? 그걸 와 몰라 ..

상연 어머니 수술비는 본인들이 열심히 일해 갚다 드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하연 아, 이작은 조상님들이 이미 돕고 있다니까 그러네...

상연, 획 찌려보자 하연 움찔하더니 얼른 전단지 한 장을 건네며...

하연 저기...우리가 지금 사람을 찾고 있는데... 뭐 이런 일을 허니께 터미널에 대해선 흔히 꿰고 있제? 오다가다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 있으면 좀 붙여주소...

전단지를 받아 유심히 쳐다보는 철학형제...

S#51-A 대전 터미널 옆 / 후미진 골목 / D

철학 형제 ... 급하게 어딘가를 향해가고 상연하연 그 둘을 따른다.

여일은 뒤에서 카메라를 들고 쫓고 ...

하연 확실한기가?

철수 저희가 사람 얼굴만 보는 직업이라 .. 그 뭐랄까 각인력이 좋아요 .. 왜냐면 그걸 기억해야 .. 했던 사람을 다시 안하게 되거든요 ...

후미진 골목엔 노숙자들이 듬성듬성 ... 닳고 더러워진 이불들을 뒤집어쓰고 자고 있고 ..

철수 학수 ...한명씩 들쳐보며 누군가를 찾는다.

그러다가 ...찾았다.

철수 아저씨

CUT TO

S#51-B 대전 터미널 옆 / 후미진 골목 / D

병 소주 한 병이 노숙자 김씨 옆에 놓여 있고 ..

김씨 우리야 그냥 고정멘트지 ... 천 원짜리 하나만 줘유 .. 스티로폼 좀 사서 깔고 자게 유 .. 근디 할머니가 .. 내는 차비가 없어가 .. 묻가고 있는데 ...그러네 .. 행색은 고운디 우째 이럴까 싶어서 ... 아이고 ... 나보다 더 하네 ..라는 생각에 ... 맘이 아팠어 ... 우리 엄마 생각도 나고 ..

학수 아저씨 어머니 돌 되기도 전에 육이오때 돌아가셨다면서요....

하연 됐고요 ... 그래가 그 할머니 어디로 갔는데 ... 그걸 좀 말하라꼬요 ...

김씨 (소주 한 모금 들이키고)차비 드렸지 ... 여수 간다고 허가지고... 여수 가시오 하고... 차비를 손에 꼭 쥐어드리고 차에 올라 타시는거까장 보고 ...발길을 돌렸지 .. (소주 또 들이키고)

학수 아니 아저씨가 돈이 어디 있어서 차비를 드려유 ...

김씨 사람 무시하는겨? ...

상연 여수요? ... 아니 여수를 왜? ...

모두, 잠시 사이

하연 마산 사람인데 ... 우리 엄마

철수 (손가락으로 길을 그어보며) ... 너무 돌아가시는건데 ...

S#52-A 여수의 한 보육원 건물 외경 인서트

S#52-B 보육원 / 원장실 / D

승자, 원장의 뒤쪽 벽에 붙어있는 ‘여수 보육원’이란 글자를 보며 고개를 갸웃한다.
여자원장은 무성의하게 보육원 원생 명부를 넘겨보고 있다.

원장 찾는 곳이 여기가 맞으세요? 그런 이름은 없는데...
승자 (간절하게) 잘 좀 한 번 찾아봐주소. 아홉 살 이데예...
원장 아니, 아까는 일곱 살 이래매?
승자 그제... 아홉 살도 있고, 일곱 살도 있습니다. 작년에 갖다 맡겼으니까 이제 열 살하고 여덟 살 됐겠네예.
원장 둘이나 손주들이 맡기셨음 다 아는데 ...
승자 아들들 입니데이 .. 손주가 아이고 ...
원장 네

탁, 원생 명부를 덮는다.

S#53-A 보육원 / 마당 / D

아이들이 삼삼오오 놀고 있다.
그 아이들을 보는 승자 ... 가슴이 울컥대어진다.

아이 (승자의 등 뒤에서) 할머니 ... 누구 데리러 왔어요?
승자 (뒤돌아) ... 응 ... 우이 아가들 ... 얼라들 데리러 왔다.
아이 잃어버렸구나?
승자 ...몬찾겠네 ... 여 어디 있을 텐데 ...
아이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눈감고 기도하라 했는데 ...
승자 그카문 보인다나?
아이 응 ...만난다던데 ...
승자 내는 기도 할 줄 모르는데 ...

아이, 천천히 승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승자의 눈을 감겨준다.
아이 손 ...알 수 없는 바람을 ...향내를 가지고 온다.

아이 보여요?
승자 보인다 ... 여 내 앞으로 오네 ...

S#53-B 환영 ...어린 시절의 상연과 하연 ... / 어딘가 / D

승자 앞으로 와서 안기고 ... 서로 장난치듯 ... 승자의 허리춤을 잡고 놓질 않는다.
어느새 어린 시절의 형제는 지금의 어른이 된 모습으로 승자의 허리 등 뒤를 안고 웃는다.
승자도 웃는다...
그러다가 다시 바람인 듯 ... 스치듯 ...
잠시 사이 ... 눈이 떠진 ... 승자

S#53-C 다시 보육원 / 마당 / D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풍경 ...
승자, 가방에서 흰 봉투 몇 개를 꺼내 앉았던 벤치위에 놓고 ...

승자 친구들 주교로 ...

승자 천천히 일어나 간다...
그때, 아이 ...갑자기 ...

아이 ...상연이 많이 컸지요? ...
승자
아이 ...하연이는 귀여운거 그대로구요

승자 ...아이를 빼꼼히 바라보다가 ...고개만 끄덕이고 ... 다시 돌아간다.

S#54-A 여수 가는 길 - 대전터미널에서 톨게이트로 향하는 도로 / 차안 / D

상연 ...왜 하필 여수일까? .혹시, 우리 아버지 고향이 여수였니?
하연 예수의 고향이 베들레헴인가?
상연 아니..거긴 그냥 태어나신 곳이고...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지.
하연 생면부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은 난데, 자란데 구분해가며 다 아는 사람이 어떻게 낳아준 아버지 고향을 모릅니까? 아, 아버지는 마산 토박이 아닙니까!
상연 그럼... 아버지가 배 타러 가신 곳이 여수였나?
하연 아버지가 배를 와 탑니까? 뭐 특별히 직업이나 있었는교? 허구헌 날 놀음판에 동네 술집이란 술집은 다 휘젓고 댕기는 통에 엄마 속 문드러져나던 거 기억 안나요?
상연 그치? 그래..맞아!... 근데..너 왜 그랬어?
하연 뭘 왜 그래요?
상연 재연화면 말이야. 니가 원양에 배 타러 갔다 돌아가셨다고 했다면... 순간, 잘못 찾았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알어?

하연 그럼, 방송에 대고 우리 아빠는 김마담 배 타러갔다 돌아가셨다고 말해요?

상연 후~

차가 대전 톨게이트를 빠져나오는데 ...

여일 (앞을 보며 운전하다가) ...어, 저기!!!

도로 옆 갓길에 철학 형제와 그 옆에 노숙자 김씨 ... 종이에 [갓길 바래] 라고 써놓은 플랜 카드를 들고 ...

손을 흔든다.

하연 저 형제도 ...이상한 형제야. 귀신 안 들고 저리 되기도 힘든데 ...

S#54-B 대전 톨게이트 옆 / 갓길 / D

학수 말해보세요 ... 도대체 아자씨가 워떻게 돈이 생겨서 할머니 차비를 준거예요?

김씨, 학수와 철수만 지긋이 본다.

S#55 인서트/ 대전 터미널 안 / N

김씨, 돌아가려는데 ...승자가 잡는다.

승자 돈이 없는데요? ...(가방에서 봉투하나 꺼낸다) ...이거라도 팔아 밥이라도 드이소 ..

김씨 ...봉투를 보고 안을 확인 하더니 ...깜짝 놀란다.

그리고 그 봉투 안에서 얼마를 꺼내 ... 승자를 준다.

김씨 차비라도

승자 아입니다 ... 뭐 할라고 이런 걸 ... 하이고 고맙습니다이 ... 초면에 이렇게까지 ...

김씨 ...지금 이 모든게 낯설다.

S#56-A 목포로 가는 길 / 차안 / D

여일 목포 다와가요 ... 톨게이트 지날 때 ... 요거 줘 .. (카메라를 준다)

하연, 이젠 익숙하게 ...받아서 작동 한다.
그러면서 어디론가 ...전화를 ...

하연 네 ... 맥아더 형님인교? ... 내 양주 자롱도사 입니다. 형님 목포인교? ... 내 여 왔습
니다. ...아니요 ..출장 곳이 아니고 ... 뭐 사연이 그렇게 됐고만 ...

하연의 통화 내용을 듣는 여일과 상연 ...
목포 톨게이트가 눈앞에 나타나고 ...
하연의 카메라가 ...제법 잘 잡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차가 덜컥 ...앞.. 보닛에서 검은 연기가 ...

cut to

S#56-A 목포로 가는 길 / 잣길 / D

도로 잣길에 퍼진 차를 세우고 택카차를 기다리는 셋 ...

여일 아이 .. 아까부터 이상하게 온도게이지가 올라가던데 .. 휴게소에서 세울걸 ...
하연 (차의 로고를 보며) ..지금!! 만나러!! 가는데!! 왜!! 서냐고!! 이놈의 차 ..저거 제목
바꾸라니까 ...

상연도 한숨 ...
그때 ...그들 앞에 다가와 서는 ...말도 안 되는 폐차 수준의 봉고 차.
유리창이 열리며 ... 운전하는 이의 얼굴 ...

맥아더 ... (밤인데도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 웰컴 투 목포

S#57 도로 / 맥아더의 차 안 / D

여일과 상연은 이 차가 더 불안하다...

맥아더 어제 티비서 봤어요... 카 드라마틱 하게 어머니 나오는 찰나에 담주에 계속으로 넘
어가데 ... 2주 분량 따는 것이 쉽지 않은데 ...
하연 응..봤나~? ..방송서는 그렇게 나갔소?..
맥아더 형님분이 실물이 훨씬 좋으시네 ...
상연 (불편한 미소로)...반갑습니다..
맥아더 예.. 저는 이 동생하고 피만 안 섞였다 뿐, 친형제처럼 지내는 맥아더 보살이라고 험

니다! 그, 아시죠?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하셨던 맥아더 장군...바로 그분을 모시고 있
지라.. 뭐 아메리카시니께 잘 아시겠죠? 헤헤...

상연 아 ..그러시군요 ...

맥아더 아 맞다 ...아우님 오신 김에 ...내일 오후에 ... 이쪽 동네에선 유지인디 .. 유팔복이라
고 국회의원 선거도 나가고 뭐 그런 양반이여 ... 그 양반 모친이 ... 자꾸 헛것이 보
이고 꿈자리에 땅이 갈라지고 우박내려 눈발이 쑥대밭이 된다고 해서 아예 이판에
곳을 놓자는데 .. 난 뽀드볼러 노래나 하지 곳은 안하잖아 ...한판 뛰고 가지지 ...

하연 형님 판을 나더러 하라고요?

맥아더 거 엠오유(mou) 맺은거 있잖아 같이 좀 험시다 아우님 ..

하연 ...어 .. 일단은 ... 오늘이도 엄마 찾으면 올라가야지 싶은데 ...

맥아더 아 그러 ...찾으른 가시고 ..연락 없으면 검사검사 ... 신기 받아 방향이라도 손에 쥐
시고 ... 여거 경찰서에 얘기 해 봤으니까 ... 지금 가서 신고혀놓고 ... 우리집으로들
갑시다. 목포나 여수나 한곳이니 ...

하연 일단은 여수 도착해서 둘러봅시데이 ... 밤길에 스치듯이 만날수도 있다아입니까.

여일 저기 ...요기 국도 휴게소 라도 잠시만 ...화장실 좀 ...

S#58-A 국도변 휴게소 / 주차장 / D

여일 화장실에 가고 ..
차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하연.

S#58-B 국도변 휴게소 / 차 안 / D

차안에 상연과 맥아더 둘 ...

상연 (조용히) 근데 .. 모시는 분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시면 영어로 하시나요? ..아니면 ..

맥아더 네? ...

상연 그냥 궁금하네요... 그분들이 오시면 막 대화도 하고 ... 그러시는데 외국 분은 어
떠신지?

맥아더 (당당하게) 더빙을 하지요. 맥아더는 배한성이가 하는데 ... 가끔 딴 놈 목소리로도
하고 그래요 ...

상연 (어이없어 웃으며) ..네? 아 ..하하 ...네 ... 저도 화장실 좀 ...

상연 차 밖으로 나온다...

여일이 차에 탄다.

맥아더 (가는 상연을 보고선)아니 그럼.. 예수하고 얘기 할 땐 이스라엘 말로 하나...나 원...

여일 근데요 ... 궁금한데 ...왜 맥아더 장군을 모시면서 인천에서 안하시고 목포에서 하세요?

맥아더 에이씨 ... 포교활동이라니까 ... 왜 스님들은 인도로 안가고 여그서 절을 짓나!!

여일 근데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맥아더 ... 후 ...

S#59 여수 돌산 공원 / N

어둠 속에서 후레쉬를 든 경비남(50)이 순찰 중이다.

그때, 후레쉬 빛에 비춰지는 무언가...

가만히 보면...하얀 소복(?)의 여자.

‘악!!’ 기겁하는 경비남.

S#60-A 여수 돌산 공원 / 경비실 / N

작은 가스레인지 위로 라면 물을 올리며 앉는 경비남.

경비남의 잠바를 입고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승자.

발 옆, 전기스토브에 넣어놓은 버선에선 김이 모락모락 난다.

경비남 (라면 봉지를 뜯으며) 일곱 살, 아홉 살 이라고요?

승자 이자 여덟 살, 열 살 됐지요.

경비남 쫓쫓.. 그래 손주들을 둘씩이나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승자 내 아들들 입니데이...

경비남 예? 누가요?!

승자 가들이 내 아들들이라고...

경비남 예~예?!.... 아! 아이고 늦게 보셨네요... 근데 그게 생물학적으로다가... 혹시 지금 연세가...?

승자 서른여덟이요...

퍽! 경비남이 들고 있던 날계란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진다.

경비남 멍하니 승자를 돌아본다.

경비남 (얼른 계란을 치우며) 아이고 그럼 가능 하시지요 ... 서른여덟 이면 뭐 충분히 ...

자꾸 승자 얼굴이 눈에 들어온다.

cut to

S#60-B 여수 돌산 공원 / 경비실 / N

경비와 승자가 라면을 먹는 모습이 ...독특한 방식으로 보여지고 ...

S#61 여수 버스터미널 / 관리실 / D

cctv 를 보는 형제와 카메라를 든 여일.
터미널 직원

(소스 C)

cctv 엔 승자가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

직원 요기서 내려서 요쪽으로 걸어 가셨응게 다시 요기로 ... 그렇지 ..그리고는 예고 ...곧
장 나가버리셨네 ...

cctv 에 터미널을 빠져 나가는 모습이 나온다.
상연, 화면 속 승자를 몽클하게 본다.

상연 어머니

하연 아니, 한곳에 지긋이 좀 있지 어딜 저렇게 돌아다닌데 ..꼭 누구 찾는 사람마냥 ...저
가방은 또 어디서 난거여? .. 빈손일텐데 ...분명히 ...

한숨들 ...

S#62 여수 파출소 안 / N

어두워지는 시간 ...

상연과 하연, 나란히 앉아있다.

분주한 경찰들.

하연과 상연이 말을 꺼내 보려고 틈을 보지만 쉽지 않다.

경찰3 (경찰4 보며) 아까 그 전화 온디가 소망 보육원하고 또 위디였제?

경찰4 한누리 보육원하고.. (서류 넘겨보더니) 아! 은혜아동센터요.

경찰3 (뭔가 적더니) 환장허졌네... 아니, 웬 놈의 할머니가 돈 봉투를 나눠주고 다닌단 거
여! 둘, 넷, 여섯, 여덟... 어휴, 열두 건이 넘네!

경찰4 참 사람들도 웃기조이?... 돈을 훔쳐간 것도 아니고, 주고 갚는다... 뭘 신고들을 하는데
요?

경찰3 봉투가 부의봉투라잖나! 섬찝하게...

하연 (가만히 얘기를 듣다가) 액막이네!

경찰3 에?

하연 연말, 정초에 그런 거 있소. 집안에 우환이나 횡수가 있겠다카든 문지방에 팔죽도 썰
바르고, 디딜방아 밑에 닭모가지도 파묻고, 또 이런 식으로 봉투를 돌리기도 하고
그잡니다.

경찰3누가요?

하연 뭐... 그 할매가 모시는 만신님이 그라겠지요.

경찰4 만신이요?... 아, 무당!

경찰3 하여간에 사이비 무당새끼들... 헐 일도 많아 죽겠구만 별 그지 같은 걸 시켜서 정
신 사납게 만들고 지랄이야!

하연, 인상 구겨진다... 상연은 애써 웃음을 참는데 좀 티난다.

경찰3 근데 두 분은 무슨 일로?

상연 네, 저희가 어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전단지를 주며) 여수 쪽으로 오셨다고 해서요.

경찰3 아~~또 할머니네? 아니, 웬 할머니들이 갑자기 다 여수로 몰려와?

경찰4 혹시... 이 할머니가, 저 할머니 아니여?

하연 (단호하게 고개 저으며) 어디가가 봉투를 붙이고 있음 모를까, 돌릴 분은 아닙니다!

경찰3 일단 알았구요, 연락처는... (전단지 보며) 요기로 허면 된당가요?

하연 (명함 꺼내며) 아 고거는 방송국이고요... 일루 해주시면...즉빵입니다

경찰3, 하연의 명함을 받아서 보면... '자룡도사! 맑은 영으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흠흠' 펜스레 헛기침만 하는 경찰3.

S#63-A 여객선 터미널 안에 전단지를 붙이고 있는 상연과 하연

S#63-B 수산물 시장 상인들에게 전단지를 보여주는 상연과 하연.

S#63-C 여수역 주변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상연과 하연.

S#64-A 여수 터미널 /

앞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 셋 ..

맥아더는 옆에서 ... 점을 보듯 ... 눈을 감고 강신을 받으려 한다.

cut to

S#64-B 여수 터미널

눈감은 채 자고 있는 맥아더 ..

상연 하연 ... 힘 빠진 채 .. 멍하니 ...앉아있고 ..

맞은편엔 ... 웬 어린 소녀가 ... 껌 박스를 두고 찬송가를 부르며 동냥을 하고 있다.

여일 ... 김밥 몇 줄을 사온다.

앉아서 풀어내는데 ...

하연...껌파는 소녀를 보고 ..

하연 찬송가가 참 좋은기라... 저거 없었으면 세상 거지들은 뭘 레파토리로 구걸을 했을
 까 ...

상연, 그 소녀를 보고 .. 뭔가 .. 불편한 마음 ...

김밥을 들고 .. 소녀에게 다가간다.

상연 저녁은 먹었니?

소녀 ...(고개만...젓는다)

상연, 김밥을 앞에 놓아주고 ... 주머니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낸다.

상연 부모님도 안계시고?

소녀 (이상한 듯 상연을 물끄러미 본다)

상연, 돈을 손에 쥐어주고 ... 소녀의 손을 꼭 잡아준다.

상연 오늘은 잠들 때 ...기도를 해보렴 .. 응답해 주실거야 ...

하연, 그런 모습의 상연을 보고 ... 한숨만 ...

그러다가 옆에서 정말로 기이하고 힘든 자세로 잠든 맥아더를 톡친다.

맥아더 깬다.

하연 드가 자소 ... (상연을 향해) .. 얼라 손에 돈 쥐어 주면 그제 가 돈 인줄 압니까? ..
 괜한 양아치들 좋은짓 시키지 말고 오소.. 드갑시다.

상연 (다시 와서는) 무슨 말이니?

하연 저 얼라가 배가 고파 동냥질 하는 줄 아소? .. 재 회사원입니다 ... 벌어가 회사에
 갓다 주고 ... 거기서 뽕바리 받아가 ... 밥 먹겠지요 ... 재 델꼬 있는 회사 사장만
 좋은기라예 .. 저 얼라 저 불쌍한 목소리 표정 다 교육받고 나온다 아입니까..

상연 애 한테 그게 무슨 말이니? 재 지금 한 끼 배를 채우려고 저러는거 안보여? 니가
 될 안다고 그렇게 애길하니?

하연 (상연을 뻘히 쳐다보다가)안 해본 놈은 모르니까 그리 말하지요 불쌍 하다꼬 ..
 이돈 가져가 밥 먹으라 뜨신데서 자라 ... 근데요 .. 해본 놈은 ... 생생하게 다 알지
 요 ... 압니까 그거 .. 형 그렇게 바다 건너 가버리고 ..일주일도 안 되가 뛰쳐 나온
 곳이 ... 여깁니다. 내가 외운 찬송가만 몇 곡이고 ... 목마른 사슴부터 시작해가 줄
 줄줄 외우는 멘트가 아직도 잠결에 나옵니다. 손에 한 톨도 못 쥐고 들어가면 .. 일
 곱 살짜리를 머리를 뜯고 .. 더 불쌍하게 보여야 한다며 ... 그 깡패새끼들이 입술을
 쥐어뜯어 ... 주둥이를 시퍼렇게 만들어 다시 보냅니다. 그 외국인 부모 앞에서 알랑
 방귀 끼어 가며 데려가 달라고 안달해가 가버린 형은 모르겠지만 ... 나는 안다꼬요
 ... 저 아가 저 골목을 돌아 어떤 놈한테 저 돈을 주고 칭찬받고 밥 한 숟가락 얻어
 먹을지 내는 흰하다꼬요 ...

상연 ... 답답하다는 듯 ..말이 안통하다는 듯 ...

상연 췌트

가버리려고 돌아서는데 ...

하연 와 왔는꼬?

상연

하연 30년이 지났는데 ..뭐가 부여잡을게 있다꼬 왔는데 ... ? 잘살고 있으믄 그냥 거서
 잘살믄되지 ... 뭐 빨아먹을게 있다고 여 왔는데 ...

상연 보고 ..싶어서 ... 찾고 싶어서 왔다 ...

하연 그동안은 어디서 뭘 하며 살다가 30년 만에 보고싶었냐고!!! (여일에게) 이거 신청
 하는데 돈 드요?

여일 네?

하연 돈 한 톨 안 드는 걸 ... 왜 이제야 헐가꼬 ... 애써 찾은 엄마를 사라지게 했냐꼬!!

상연 가버린다.

S#65 여수 국밥집 / N

여일 국밥에 밥을 말아 잘 먹고 ... 소주도 몇 잔 ..

하연 밥을 뜨는 듯 마는 듯 ... 소주만 따라 들이킨다.

한손엔 ...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둘이 찍혀진 사진이

여일 (거진 다 먹다가) 밥은 안 드세요?

하연 자신의 공기밥도 여일에게 준다.

하연 묵으소 ...

여일 누가 밥 달래요? ... (소주를 들이키고) 거기서 그렇게 애길 하면 내가 너무 미안해
 지않아요 ...

하연 와 거기 있어가 그 말을 듣노?

여일 치 ... 왜 그렇게 형을 못 잡아먹어서 그래요 ...

하연 아주매 ... 여 국밥 하나 포장해 주이소 ... 계산하소 .. 담배피우고 있을게 ..

하연, 일어난다.

테이블 위에 놓인 ... 사진을 들어보는 여일 ...

여일 귀여웠네 어릴땐 ...

S#66 여수 여관방 / N

상연이 화장대 의자에 앉아 눈물이 그렁한 채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티브이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뉴스 화면 속 (소스C)

앵커 이틀째 여수지방에서 속속 발견되고 있는 의문의 봉투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희 기잡니다.

뉴스 화면 속 (소스D)

김영희기자 네, 경찰에 따르면, 이 의문의 봉투를 보육원에 전달한 사람은 약 60대 중반
 의 한 노인이라고 합니다. 이 노인은 그제 오후부터 적게는 약 2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금액의 봉투를 보육원 원아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
 되고 있습니다. 경찰수사 결과 이 봉투 뒷면에 적혀있는 이름들이 놀랍게도
 민주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이름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상연 (영어) 아~ 주사 잘 맞았다고 선물 받았어? 아빠도 어제 선물 샀는데 .. 아빠 나라에
 선 어제가 어린이들을 위한 날이거든 ... 그럼 니 얘기 많이 했지 ...

 여기 삼촌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데.. 그러~엄... 그때까지 다 낮고말고... 그래..또
 전화할게...

상연 시계를 본다.

S#67 숙소 근처 / 골목길 / N

손에 국밥 포장 하나 ... 든 하연

여일 근데 ...진짜로 그렇게 얼굴만 보면 딱 알아요?

하연

여일 나 이별수도 보이고 밤새 울다 온 것도 보이고 ... 그렇게 딱 보면 다 알아?

하연 이별 수 없는 사람이 어딴노? ... 딱 보니 눈이 시뻘개가 부어있으니 운기고 ..

여일 뭐야 사기꾼이네 난 진짜 귀신도 보이고 나쁜 귀신은 때려 잡아주기도 하고 그러는 줄 알았네 ...

하연 내가 해병대가 ... ?

여일 ...후 ... 어머니 여기서 찾았음 좋겠다

잠시 사이.

하연 조카 놈은 ... 가망 있답니까?

여일 네?

하연 서울 가면 ... 병원 잡아 왔다. 쿵짝이 맞아가 내꺼라도 줄 수 있으면 다행인거고 ..
즈그 아들이 죽는다는데 ... 뭐라도 부여잡고 싶었겠지.. 카메라 찍을라면 찍으이소
.. 행여 골수 맞아가 조카놈 살리게 되든 .. 저 인간 억수로 울거고 .. 그거 방송 타면 그쪽은 로또 맞는기네 ...

(소스 A)

인서트 / 상연의 인터뷰 화면

상연 저는 지금 한인 교회 목사로 있고 ..가족은 미국인 아내와 아들이 .. 네 서류에 적었던 그 아이입니다.

상연 계속 아픈 상태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골수 이식을 받지 못하면 더 힘들어질 ...
(말하다가 맘이 벅차오는지 고개를 숙인다) ... 가족인 저희도 해줄 수 없습니다.

상연 (진정하듯) ... 물론 제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떤 짓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맞는 골수를 찾아야 ..(지지직 화면이 흔들린다. 계속...지지직 ...거리며 .. 화면 상태가 안좋다) ...

다시 골목 ..

여일 저기 ...형님 가족들 못 봤죠? 아직 ...사진으로도?

그때, 하연의 눈에 들어온 골목 귀퉁이
불량스러워 보이는 사내 두어 명이 아이들 서너 명을 앞에 두고.
돈을 받고 꾸지람을 주고 발길질까지 해대며 있다.
그 아이 중엔 아까 터미널 앞에서 본 소녀도 있다.

하연, 잠시 멈춰 서서 보다가 그 무리들에게 다가간다.

하연 허이고야 얼라들 뺑바리 뽀찌 뜯어가 밥먹고 사는 아제들이네 ...
사내1 뭐여 당신? ...

하연 (소녀에게 다가가) ... 맞제 ...회사원? ...여거가 너 사장님이고?
소녀
하연 사표 쓰자 오늘 ... 애들아 .. 파출소로 뛰어가서 ... 살려 주세요 해라 ... 경찰아저씨
 가 뭐라카든 ... 빼요빼요 타고 요쪽으로 와라 ... (여일에게) 아들 좀 텔꼬 가소 ...
사내1 아저씨 뭐여 깡패여? 암행어사여? 잘 가다가 갑자기 죽고 싶어 진거여?
하연 ... 국가대표 택견 선수다.. 와?
사내2 뭐라는거여?
하연 (사내1을 보다가) ... 작년에 가신 니 엄마가 ...편하게 가신줄 아나 ... 니 어깨쭉지에
 매달려가 하지마라 하지마라 그래 살지마라 목놓아 운다 ...

사내2, 사내1을 본다 ...

사내2 뭣을 알고 온 사람인디 ...
사내1 뭐라는거여? 올 엄니 가신거랑 관계있어서 온거여? 시방 ... 누가보낸겨?
하연 머리 반쪽이 부숴진게 ...차에 치셨나 베란다에서 짬뽕을 하셨나 ...

사내2, 공포스럽게 하연과 사내1을 번갈아 본다.

사내1 엄마가 여러명인디 몇 번째 엄마를 말 허는지 모르겠다 이 시발놈아 ...

사내1 하연의 가슴을 발길로 차 밀어버린다.
벽에 쿵 부딪히며 쓰러지는 하연.
여일 비명을 지르고

S#68 숙소 근처 / 다른 골목 / N

상연, 하연을 찾는 듯이 ... 두리번대며 ...골목을 거닌다.
그때 ...여자의 비명 소리 ...

그곳으로 서서히 빨라지는 상연의 발걸음 ...

S#69-A 숙소 근처 / 골목 / N

하연의 얼굴이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있고 ... 아이들을 감싸며 ..여일이는 별별 떨고 있다.
상연이 달려들어 ... 하연을 감싸 안는다.

상연 하연아 ... 하연아 괜찮아 왜이래 ... (사내들을 보고) 뭐..뭐하는 겁니까?! 왜..왜들...

그때, 여일 등 뒤의 소녀를 발견한다.

사내1 여거는 또 뭐여? ... 뭐야 당신? .. 같은 ..거시기 그 택견이여?

상연 당신들 뭐니까 ... 왜 ...

그때, 처져있던 하연이 바닥에 깔라진 보도블록 조각을 들고 사내에게 달려들어 ...머리를 내려 찍는다 ...

그리고 다른 사내의 발길질에 다시 나가 떨어진다.

이마에 피를 흘린채 일어나는 ...사내1.

자신의 머리에서 피를 훔쳐내며 ...

사내1 뭐여 이거 ... 우리 엄니 모냥 되어버렸네 ... 니 말마냥 옥상서 뛰어가 차에 치여 가버린 우리 엄니꼴이네 ...

사내1 허리춤에서 잭나이프를 꺼낸다.

그리고 하연에게 달려드는 순간 ...

상연이 그 사이를 막아선다.

잠시 사이 ...

상연의 눈이 사내1을 바라보고 있다.

온몸에 힘이 들어가 시뻘개진 눈으로 사내1을 노려보고 ...사내1의 모습에서 ...

과거의 어느 순간이 ...보인다.

흑인 사내의 얼굴 ...

그리고 짧게 짧게 스치는 어린시절의 상연 ...

(소스 E)

인서트/ 과거

술에 만취된 미국인 양아버지

두려움에 떠는 어린 상연 ...

허리띠로 어린 상연을 구타하는 양아버지 ...

담배에 불을 붙이는 양아버지.

두려움에 바들바들 떠는 어린 상연. 한쪽 다리를 다쳤는지, 한쪽으로만 열심히 도망가려는 데.. 양아버지가 “재수 없는 한국새끼!” 하며...

불이 붙은 지포라이터를 책 상연에게 집어던진다.

순간, 어린 상연이 불길에 휩싸인다!

상연, 손에 피가 고인다.

ナイ프를 쥐고 있는 사내1의 손을 꺾더니 ...

사내1도 다른 사내들도 ...

짧고 강하게 ... 부숴버린다

상연, 하연을 부축해 일으킨다...

상연 괜찮니? ... 눈 떠봐 하연아 ...

하연 (힘겹게 상연을 보더니) 저녁은요?

손에 아직도 쥐고 있는 국밥 포장을 들어보인다 ...

cut to

S#69-B 숙소 근처 / 골목 / N

상연이 하연을 업고 .. 걷는다.

하연의 손에 꼭 쥐어진 국밥.

(소스 A)

인서트로 상연의 인터뷰 영상이 흐른다.

상연 한국으로 돌아갈 수 도 .. 미국사회에 적응 할 수 도 없었고 ... 한인타운에서 갱이 됐 습니다. 그리고 고의는 아니었지만 ... 살인도 했습니다. 존 케이스라는 흑인이었는데 .. 정당방위였지만 법원은 저의 진술을 믿어주지 않았고 15년형을 살다가 나왔습니다. 그 리고 그 이후 새 삶을 살았고 6개월전에 드디어 목사가 됐습니다. 그나마 조금은 떳떳 히 제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된 거죠 ..(귀에 꽂은 이어폰에서 질문을 받는 듯 ...잠시.... 네 .. 지금 저의 아들이 제가 죽인 존의 아들입니다.

S#70 여수 / 병원 응급실 / N

상연과 하연 나란히 누워 있다.

상연의 손에 감겨진 붕대.

하연의 엉망이 된 얼굴 ...

잠에서 깨어나듯 ...

눈을 뜬다.

앞에는 여일이가 앉아있다.

잠시 여일과 꿈뻑 꿈뻑 시선만 주고받는다.

자신 옆의 형도 본다.

여일이가 다가와 손에 쥔 ... 하연과 상연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준다.

사진을 보고 ... 뭐? 하는 눈으로 여일을 본다.

여일, 손가락을 사진 뒤쪽에 보육원 간판으로 가져간다.

여수론 보육원

여일의 손가락이 ‘문’ 자를 가린다.

여수 보육원 ...

하연 그제서야 ...한숨이 쉬어진다..

하연 하이고야 ... 노인네 ...참말로 미치겠구로 ... 찾았나?

여일 (고개만 끄덕) ... 네.

하연 형아 깨우소 갑시다.

그때, 잠든 상연의 입에서 가느다란 잠꼬대 ...

상연 미안하데이 ... 그래 안할라했는데 ...참말 미안하데이 ...

또렷한 경남사투리다.

형을 바라보는 하연 ...먹먹한 가슴 ...

여일도 그게 느껴지는 듯 ...

S#71 여수 / 택시 안 / N

뒷자리에 상연과 하연 ...조수석에 여일 ...

형제 ... 서먹하게 반대편 유리만을 보며 ...

하연 노인네 참말로 사람을 썩고생을 시키네 ... 고아원도 그래 ... 마산에 지었으면 그냥
 마산고아원이라고 하든가, 여수론은 무슨...

상연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란 뜻이다... 여수론...

하연 누가 그거 해석해 달랍니까?

S#72-A 여수 / 승자 병원 복도 / N

복도 걸어가는 형제 ..엄마 만나러 가는길 ...

S#72-B 여수 / 승자 병원 병실 / N

상연, 하연 문을 열고 누워 있는 승자를 만난다.

승자, 링겔을 꽂은 채 ...

허리를 세워 멍한 곳에 시선을 드리운 채 ...

상연과 하연 승자 앞에 다가와 선다.

승자도 고개 들어 돌을 본다.

하연 우리... 엄마 입니더 ...

상연, 무릎을 꿇고 몸을 낮춰 승자의 손을 잡는다.

상연의 붕대 감은 손 ...

승자 상연의 손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얼굴을 보고 하연의 얼굴을 보고 ...

승자 ...둘이 또 싸웠나? ... 싸웠네 ...니들은 와 만날 싸우노 ..

상연과 하연 ... 자신들을 알아보는 승자의 말에 눈물이 ..그리고 웃음이 ...

승자 오매야 저 놈아 얼굴 봐라 ...니 형한테 또 까불었제?

하연 (눈물 속 웃음으로) 아이다 ... 형아가 내 괴롭히는 새끼들 때리줬다 아이가 .

승자 아 맞나 ...

상연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끄덕)

승자, 계속 상연의 손을 아껴 만지며 ...

승자 (하연을 보며) 와봐라 ... (얼굴을 매만지며) ..허이고야 .. 마이 다쳤네 ...(다시 상연
의 손을 만지며) ... 때린놈도 다치나?

상연, 못 참겠다는 듯 ...울음이 소리가 된다.

승자, 우는 상연의 등을 어루만지며

승자 울지마라 ...잘했다. 동생 괴롭히는 놈들 ...잘됐다. 엄마 안 혼냈게 ..울지마라 ...

그 모습을 보는 여일도 ...하연도 ...

병실이 따뜻해진다.

(소스 F - 승자 병원 / 진료실)

티브이 방송

[지금 만나러 갑니다] - 우리는 형제입니다. 2화.

의사의 인터뷰

의사 원래 몸 상태가 안 좋으신 분이 너무 무리를 하셨습니다. 보호자분은 치매증상만 알고 계셨더라고요 ... 근데 ..환자분은 뇌종양 말기셨습니다! 크기가 이 정도면 잘 볼 수도, 뭔가를 기억해낼 수도 없으셨을 텐데... 그런데도 이렇게 뭔가를 기억해내고 찾으시려고 한 걸 보면 본인 스스로도 마지막을 예감하셨던 것 같습니다.

(소스G - 하연집 / 마당)

영상으로는 ... 승자를 부축하며 ... 집으로 들어오는 ...상연과 하연.

S#73-A 하연의 집 / 마당 / D

상연이 ... 가방을 들고 떠날 준비를 한다.

마당엔 여일이라도 차를 대어놓고 기다린다.

승자는 .. 다시 알 수 없는 치매 환자의 표정.

하연이 사진을 승자에게 보여주며 ...

상연의 가족사진이다.

하연 여 좀 보소 ... 이놈아가 엄마 손주 입니데이 ...가마히 보면 우리 집안 얼굴이 쪼매 있기도 한듯 싶은데 ... 귀찮지요?

상연, 웃는다.

상연 (승자 앞에 무릎을 꿇고) ... 엄마 ... 나 가요. 근데 또 올거예요 ...

하연 (가만히 바라만보는 승자에게) ... 선물 사온나 ...뭐 한마디 하소 ..

승자, 멍하니 ... 바라만 볼뿐 ...

하연 가소 ..영 때가 아닌 듯 싶네 ...

상연, 고개를 끄덕이고 하연과 악수 ...가벼운 포옹을 한다.

하연 엄마가 이래가 공항까지 못가네요 ... 잘 드가소 ..

상연 혹시 엄마 무슨 일 생기면 곧장 연락주고 ...

하연, 고개만 ...

승자는 아무 생각 없이 개밥을 주고 있고 ...

그런 승자를 눈에 담고 ...상연은 문을 나선다.

차에 오르는 상연 ...

여일 ..손가락으로 잘 모시고 보내드리고 전화 할게요를 복잡하게 손짓으로 하연에게 한다.

하연 뭐라는기고?

차가 멀어져 간다.

S#73-B 하연의 / 차 안 / D

차안 ...상연의 표정도 담담해진다.

스케치

S#74-A 비행기 안 / D

비행기에 오르는 상연.

S#74-B 하연의 집 / D

손님을 대하고 있는 하연 ...

S#74-C 공항 인서트 / D

하늘을 날아오르는 비행기 ...

S#74-D 하연의 집 / 마당 / D

멍하게 하늘을 바라보는 승자.

S#74-E 비행기 안 / D

창밖으로 하늘색이 바뀌는 하늘 ...

S#75 하연의 집 / 신당 / D

핸드폰이 울린다.

하연 네 ...

여일 잘 들어가셨구요 ... 저도 .. 이제 거진 다 왔어요 ...

하연 뭐 ..그쪽 잘 들어간거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꼬 ...

여일치 ...

하연 스스로 저지른 일이지만 ... 암튼 욕봤심데이 ...

여일 저 내일 거기 갈거예요 ...

하연 어딜? ...

여일 하도 뒤숭숭해서 ... 점이나 보려구 ... 예약 좀 잡아주세요 ...

하연 담에 오소 ...내도 할렐루야랑 몇일 있어가 그런지 .. 도통 신도 안 내리고 하루 중 일 고생이네 ...

여일 암튼 전화할거예요 ... 아 맞다 ...근테 컬러링이 왜이래요?

하연 그게 뭔데 ..?

여일 아니 ...자기한테 전화 걸면 상대방이 듣는 신호음이요 ...이 음악이 아니었던거 같은데 ... 끊고 들어보세요...

하연...전화를 끊고 ...

자신의 번호로 걸어본다.

잠시 후, 들려오는 자신의 컬러링 소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근심 전혀 없네~~~’

음, 인상 구겨지는 하연!

하연 이런 씨이... 어쩐지 곳이 안 들어와!... 이놈의 할렐루야 진짜!

S#76-A 상연의 비행기 안 / D

비행기 안. 상연이 엄마와 하연과 셋이 찍은 사진을 본다.

숨을 고르고 ... 사진을 넣고 성경을 펼쳐 읽으려 한다.

그때 .. 성경 앞장에 책갈피처럼 꽂혀 있는 부적 ...

상연 ...가만히 보다가 피식 웃으며 그 부적을 고스란히 꽂아둔다.

비행기가 하늘 속 ...구름 속으로 들어간다.

엔딩 ...화면.

방송에 쓰려고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탄 ..영상들.

고속버스할머니

가만히 들어본게 말투가 틀려 .. 우리 동네 말투가 아닌거지 .. 그래 내가 참 이상하다 싶었지 .. 나는 맨 처음 그냥 대리출석인줄 알았구만 ..

상연 모든 분들께 너무 수고들 많으셨구요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 우리 주 하나님께 ... 감사기도 올립니다.

하연 그라운 와 점쟁이가 엄마가 어테갔는지 못찾았나 그라는데 .. 사람들이 조금 헤갈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점쟁이하고 우리 무속인하고는 쪼매 틀립니다 .. 점쟁이는..뭐랄까 그 뭔가 빨리 얘기 하는기고 .. 우리는 그 공식 루트가 있습니다. 신이 이렇게 들어오는 지정된 방식이 있는데 거기서 기운을 받아가 하는거라 ... 그니까.. 이게 저의 의견이 아닌 겁니다.. 아무 때나 막 오는게 아니라는거지예 (사이) .. 아유 그라운요 .. 한번 이렇게 탁 나오면 .. 그것은 안심을 하셔도 되구요 ... 하모예 ... AS 도 다 되지에 ...

철수 보면 그 두 분도 참으로 호심 지극하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구요 .. 형제간의 우애도 우리 못지않게 참 대단하다 .. 이런 것을 보면 아주 그냥 가정교육을 ... 참말로 ...

사이. (다른 질문을 받은 듯)

학수(흐느끼며) ... 십년도 더 됐지유 ..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 봐 본게 .. 눈이 그냥 확 뒤집혀 계시는디 .. 야매로 쌍꺼풀을 해가지고 오신거유 ... 아니나 달라 ... 한 이삼년 지나도 붓기가 가라앉을 생각을 안 하고 .. 그냥 그 오바르크 자육이 윗눈썹이랑 붙어서 사람을 미치게 허는디...

철수 (흐느끼다가 절규하듯) ...생각 해봐유 ... 눈을 뜨고 주무신다니까유 ...아주 그냥 밤마다 한번 씩 이렇게 불라치면 ...내가 그냥 캄캄깜깜 놀라서 ... 뭘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고쳐줘야허유 ...

노숙자 김씨 살면서 한 두 어번 있었지유? ... 기자님도 아시다시피 .. 아 ...그려요? . 네 ..그 작가님도 아시다 시피 .. 아임에프때 인자 실직자들이 많아지고 .. 노숙자분들이 많이 생겼시유 .. 그때 ..인자 많은 사람들이 어뜨카른 추위를 이기고 길에서 잘수 있느냐 ..에 대한 뭐랄까 그 탐구가 아주 본격적으로 인자 시작이 된 거지유 ...

견인차기사 궁게 그 할머니가 ... 그 차들이 썽썽 달리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 증말로

(자세보여주며) ..요로케 ...요로케 ...쇼트트랙 출발할 때 자세모양 .. 차길을
노려보고 ..탕 소리나면 그냥 뛰어나갈 자세로 있는 거유 ...그거 내가 브레
끼 안 밟았으믄 ..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거유 ...

사이.

(다른 질문을 받은 듯)

견인차기사 공개 고속도로 사고 나쁜 당황하지 말고 공철공 칠칠 하나들 ..(다음소리는
빠빠빠 로 들린다) 아주 우리가 하이에나처럼 달려갑니다...

여수경찰서경찰 우리는 .. 거시기 앞으로도 .. 아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필요로하다 라고 생
각되는 순간에 ... 언제든 달려가서 ...거시기 ...할 마음으로 ...늘 임하고 있
다 ... 뭐 그런 것 이구요 ...

보육원원장 아이들이 해맑게 한 점 그늘 없이 자라게 하는게 저희 소망이구요 ... 이번
일과 같이 언제고 다시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동들에 대해
서는 철저한 데이터 관리 .. 입체적인 상호 연락망을 구축하여 ...

백마 사실 ..방송으로 저도 보고서는 아 ..이 박무당이 이렇게 사연이 있는 친구구나 ...
아 내가 이웃으로써 너무 무심하지 않았나 .. 하는 생각이 ...

사이

(다른질문이)

백마 아니 저도 그렇게 초반에 잠깐 나오고 ... 끝날 때까지 안 나올 줄은 몰랐죠 ... 근데
방송을 보니까 .. 결국 .. 나왔더라도 ...그 어디였죠? ...네 ..그 여수에서 그 얻어맞은
친구들 같은 역할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구요 .. 차라리 ..뭐 ... 안 나오는 것도 괜
찮다 ..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 잘되면 뭐 ...2 탄도 있으니까요 ...

.
.

승자의 마지막 인터뷰.

(승자,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카메라를 미소로 보며 ... 허벅지를 몇 차례 때리다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승자 지금은 ..그 어디서 내 생각 잊었는가

그녀의 노래 ... 그 옆으로 두 아들의 박수와 흔들거리는 춤 ...

카메라 뒤의 여일의 웃음